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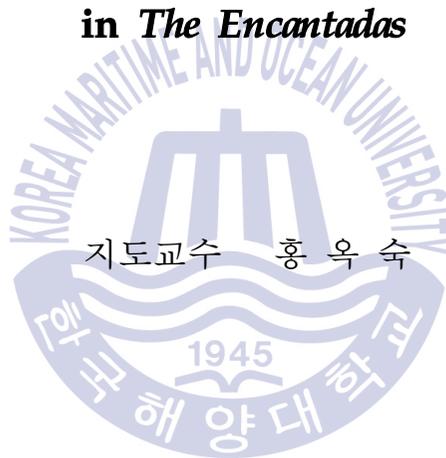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허만 멜빌의 『엔칸타다스』에 나타난
문명 비판

Herman Melville's Criticism of Civilization
in *The Encantadas*



2015년 8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김낙현

본 논문을 김낙현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위원장 노 종 진 (인)

위 원 박 준 형 (인)

위 원 홍 옥 숙 (인)



2015년 6월 24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목 차

표목차	ii
Abstract	iii
1. 서 론	1
2. 『엔칸타다스』의 과학담론 비판	6
2.1 동물학적 분류의 비판	10
2.2 통계에 대한 불신	18
3. 엔칸타다스의 방문자들	27
3.1 사회와 개인의 타락	30
3.1.1 견왕의 정치적 실험	30
3.1.2 은둔자 오벨루스의 타락	32
3.2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이는 인간	36
3.2.1 해적	37
3.2.2 후닐라	42
3.2.3 인간의 상징, 거북	50
4. 결론	56
Works Cited	59

표 목 차

표 1. 다윈의 『비글호 항해, 1839』 통계표	20
표 2. 다윈의 『비글호 항해, 1871』 통계표	21
표 3. 멜빌의 엘버말 섬의 거주자 통계표	23



Herman Melville's Criticism of Civilization in *The Encantadas*

Kim, Nag Hyun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The Encantadas or Enchanted Isles, a novella written by Herman Melville, is based on his experience of visiting the Galapagos Islands in 1841. The Galapagos Islands are famous as the site where Charles Darwin discovered and developed the theory of evolution by observing the wild animals there. Whereas the purpose of scientific inquiry is to establish a systematic knowledge through observation, Melville in the novella appropriates scientific discourses to elicit more possibilities and different perspectives on nature and human beings. Melville seems to employ scientific discourses including zoology and statistics in his observation of the Galapagos as if he were a scientist like Darwin; at the same time, however, he relies on diverse materials of literature, philosophy, religion, mythology and the history of the islands to examine both nature and human beings.

Through his description of the bleak nature of the Galapagos created by the volcanic activities, Melville reveals the avarice of a group of people who come to the islands. Starting with a distant view of the islands, *The Encantadas* consists of 10 episodic sketches and each sketch depicts each island with its animal inhabitants and human visitors. Although the narrator seems to take the eyes of a scientist who uses a telescope or a microscope, the portrayal of the barrenness of the Galapagos reflects Melville's critical

attitude toward human society. Charles Darwin took interest in the possibilities of colonizing and incorporating the Galapagos into the British Empire and was obsessed with filling the islands into the map. In contrast, interested in portraying how the islands appear to change their shapes depending on the light and distance, Melville interprets them with the magical power of imagination and literary devices such as allusion and symbol.

Melville shows how Rock Rodondo looks different depending on different perspectives and how its inhabitants such as penguins, birds, and fish resemble the stratified human society. He also criticizes American and European advocates of slavery. *The Encantadas* abounds with examples which illustrate Melville's idea that human beings cannot be understood with an one-sided view and approach. Episodes of diverse visitors including an ambitious colonist, a corrupt hermit, 'rejuvenating' and transforming buccaneers, and an abandoned Chola widow reveal Melville's in-depth literary approach. Through this strategy, he presents the possibility of interpreting or decoding the symbolic meanings of the Galapagos in various ways beyond the superficial observation of the islands.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this strategy can be found in his description of Galapagos tortoises. The mark on the back of Galapagos tortoises seems to bring "memento ****" to the narrator's mind. However, by leaving the word "mori" blank, Melville seeks to point out how its meaning is unfixed and cannot be limited into a symbol for the mortality of human beings. Melville closes the last sketch with the description of post offices and tombstones scattered throughout the islands. Through the emphasis on these remnants of human civilization, Melville depicts the Encantadas or enchanted isles as symbolic space that embodies his critique of human corruption and avarice rather than a Darwinian praise for human evolution.

Key Words: Herman Melville 허만 멜빌; Charles Darwin 찰스 다윈; Slavery 노예 제; The Galapagos 갈라파고스 제도; *The Encantadas or Enchanted Isles* 『엔칸타다스』

1. 서론

『모비 딕』(*Moby Dick*, 1851)의 작가로 잘 알려진 미국의 소설가 허만 멜빌(Herman Melville)은 선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작품을 썼다. 첫 번째 소설 『타이피』(*Typee*, 1846)는 남태평양의 마르키즈 제도(Marquesas Islands)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했던 이국적 경험을 소재로 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듬해 나온 『오무』(*Omoo*, 1847) 역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모비 딕』과 이듬해 출판한 『피에르』(*Pierre*, 1852)의 상업적 실패로 인해 멜빌의 글 쓰기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Coxe 32). 『모비 딕』은 이슈마일(Ishmael)이라는 화자를 내세워 에이헵(Ahab) 선장이 흰 고래 모비 딕을 추적해가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단순한 플롯을 갖고 있지만, “우화와 교과서, 서사시, 알레고리, 동물학 논문, 철학적 탐구, 수필, 로맨스, 안내책자 등의 방대한 집합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내용을 다채로운 문체로 묘사했고, 이런 어려운 내용으로 인해 대다수의 독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Hilbert, Tanyol 재인용 255). 『엔칸타다스』(*The Encantadas or Enchanted Isles*)¹⁾는 1854년 『퍼트남』(*Putnam*)지에 3회에 걸쳐 연재되었고(Worden 62), 1856년 그의 소설집 『피아자 이야기』(*The Piazza Tales*)에 수록되기도 했던 중편소설이다. 1841년에 갈라파고스 제도(Galapagos Islands)를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엔칸타다스』는 인물 중심으로 사건의 줄거리를 배열하고 서술하여 엮어 짜는 기존 소설의 전개 방식을 벗어나 열 편의 짤막한 스케치로 구성된 여행기(travel book)의 형식을 채택하였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1535년 파나마 주교인 프레이 토마스(Fray Tomas)가 유럽인으로서 처음 발견하였고, 1570년에는 지도 제작자 아브라함 오르텔리우스(Abraham Ortelius)의 세계지도에 처음 등장하였다(Worden ix-x). 하지만 갈라파고스 제도는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이 진화론을 탄생시킨 배경이 된 섬으로

1) 이후 *The Encantadas or Enchanted Isles*로부터의 인용은 이 텍스트에 따름.

유명하다. 다윈은 영국 해군의 측량선 비글(Beagle)호를 타고 1831년 12월 27일 데본항(Devon Port)을 출항(Darwin 1839, 7)하여 5년간의 세계일주 항해를 하던 중, 1835년에 갈라파고스 제도를 방문했고(Howarth 99), 제도의 지질을 조사하고 야생 동물들을 관찰하였다(Darwin 1839, 537-82).

한편 멜빌이 갈라파고스를 방문한 것은 다윈보다 6년 늦은 1841년이였다(Howarth 99). 멜빌은 포경선 아쿠쉬네트(Acushnet)호를 타고 갈라파고스 근해를 3주 동안 항해했으며, 그를 포함한 선원들은 채텀 섬(Chatam's Isle)에 6일간 상륙하여 식량과 연료를 구하기도 했다(Howarth 102). 이들은 식량으로 섬에서 거북을 잡았고, 록 로돈도(Rock Rodondo)에서 낚시를 했는데, 『엔칸타다스』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스케치에 이 거북과 바위섬의 물고기에 관한 에피소드가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의 방문으로 갈라파고스 여행기를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섬에 대한 멜빌의 묘사는 다윈의 『비글호 항해』²⁾와 비글호의 선장이었던 로버트 피츠로이(Robert FitzRoy)의 기록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멜빌은 배의 도서관에서 1846년판 다윈의 『비글호 항해』를 애독했고(Hillway 414), 결국 1846년 판을 이듬해에 직접 구입하여 완독하였다(Worden 62). 뿐만 아니라 데이비드 포터(David Porter)의 『태평양 항해기』(*Journal of a Cruise Made to the Pacific Ocean*)나 제임스 콜넷(James Colnett)의 『남대서양과 케이프 혼을 돌아 태평양까지의 항해』(*Voyage to the South Atlantic and Round Cape Horn into the Pacific Ocean*), 제임스 버니(James Burney)의 『남양 혹은 태평양에서의 발견의 역사』(*Chronological History of the Discoveries in the South Sea or Pacific Ocean*)와 같은 항해기를 참조하였다고 한다(Hillway 423).

1750년까지만 해도 갈라파고스를 두고 두 개의 군도가 지도에 그려졌을 만큼 갈라파고스는 미지의 섬이었고 섬의 개수조차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해적이나 선원들에게 각 섬의 소재가 불분명했을 뿐더러, 섬은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 이에 스페인 사람들이 이곳을 마법에 걸린 섬이라는 뜻으로 ‘엔칸타

2) 원제는 *Journal of Researches into the Natural History and Geology of the Countries Visited during the Voyage of H. M. S. Beagle round the World, under the Command of Capt. Fitz, R. A.* 으로 1839년에 출간, 이후 1844년과 1846년, 1871년 등 다윈은 독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게 수정을 가하여 수차례 출판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출판 년도를 함께 명기하고, 정확한 제목은 참고문헌에 기재한다.

다스'(encantadas)라고 부르기 시작했다(72-73). 이러한 '마법에 걸린'(enchanted) 섬들—즉 저주받은 섬인 갈라파고스 제도—는 멜빌에게 다윈과 같이 “랜턴을 든 과학자”(77)의 자세로 바라보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인간 사회와 제도를 관찰하는 수단이 된다. 이런 점에서 『엔칸타다스』는 허구와 논픽션(non-fiction)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곡예를 하고 있다. 외면적으로는 갈라파고스라는 자연을 과학자와 같은 태도로 세밀히 들여다보지만, 멜빌의 관심은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 즉 섬과 이곳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들 그리고 섬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인간 사회와 제도의 폐해를 비판하고 그러한 사회제도의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희생자이기도 한 인간을 읽어낸다.

『엔칸타다스』의 자연에는 19세기 중반의 미국이 반영되어 있다. 미국은 1776년 정치적 독립을 쟁취한 후에 정치와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는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의 변모를 꿈꾸었다. 하지만 강력한 중앙정부와 중상주의를 주장하는 해밀턴주의자들(Hamiltonians)과 그에 반해 약한 중앙정부와 중농주의를 주장한 제퍼슨주의자들(Jeffersonian)간의 갈등으로 미국의 여론은 양분되었다. 19세기 들어 사회와 경제면에서는 산업화, 도시화, 인구증가로 격심한 변화를 맞이하였고, 루이지애나(Louisiana)와 알래스카(Alaska) 매입으로 미국 영토는 태평양까지 두 배로 늘어났다. 공업 중심의 북부와 농업 중심의 남부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문화적으로 앞선 동부와 낙후된 서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다. 특히 미국인들을 격론의 장으로 몰아넣은 노예제는 남북전쟁(American Civil War, 1861~1865) 전에 발표된 『엔칸타다스』에서도 인종과 계급이라는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이하게도 멜빌은 그의 갈라파고스 여행기를 『퍼트남』에 연재할 때 살바토르 R. 탄무어(Salvatore R. Tarnmoor)라는 필명을 사용하였다(Tanyol 255). 비평가들은 살바토르라는 이름을 풍경화가인 살바토르 로사(Salvator Rosa)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워든(Worden)은 다윈이 『비글호 항해』에서 남미에서 만난 검은 피부의 원주민들을 묘사하면서 살바토르 로사의 그림을 언급하고 있음을 밝히고는, 멜빌이 이런 이름을 생각해낸 것 역시 다윈의 글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63). 하지만 살바토르 탄무어 혹은 멜빌은 다윈처럼 과학자의 눈으로만 갈라파고스를 관찰하지 않는다. 살바토르 탄무어라는 필명은 스페인이나 라틴계로 보이는 '살바토르'라는 이름과 스

칸디나비아의 호수와 그곳의 주민인 백인을 떠올리게 하는 '탄'(tarn)과 세익스 피어가 오델로를 지칭할 때 사용하던 '무어'(moor)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예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던 시기에, 흰색과 검은 색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탄무어라는 이름을 통해 멜빌은 인종간의 엄격한 구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Tanyol 255).

『모비 딕』과 같은 멜빌의 잘 알려진 작품들은 소설가로서의 그의 입지를 확실히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현대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아온 것에 비해, 『엔칸타다스』는 그동안 대중적인 관심은 말할 것도 없고 학문적인 관심마저 거의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비교적 짧은 길이에도 불구하고 멜빌 소설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여행기라는 형식은 멜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약 없이 펼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조나단 스유프트(Jonathan Swift)의 『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 1726)에서는 주인공 걸리버가 방문한 다양한 나라의 이야기가 여행기 형식으로 펼쳐진다.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글을 쓴 것으로 보이는 여행기 형식을 택했기 때문에, 독자로서는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은 독자로서는 여행기의 진위를 구별할 수 없고, 그 여행기를 믿을 수밖에 없다. 『걸리버 여행기』가 당시 영국의 정치와 사회에 관한 풍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엔칸타다스』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여행기 형식을 빌려 미국 사회와 인간의 문명을 비판하고 있다. 『엔칸타다스』의 전반부 네 개의 스케치는 「멀리서 본 제도」("The Isles at Large"), 「거북의 양면성」("Two Sides to a Tortoise"), 「록 로돈도」("Rock Rodondo"), 「바위에서 바라본 피스가의 조망」("A Pisgah View from the Rock")으로 이루어져 있다. 섬에 상륙하기 전 먼 바다에서 바라본 섬 전체에 대한 조망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 상륙해서 잡아온 거북이에 관한 이야기, 섬 주변의 둥글고 큰 바위인 록 로돈도와 이 바위에서 바라 본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은 주로 관찰에 기반을 두었다. 나아가서 섬에 서식하는 동물과 식물 및 광물을 탐사함에 있어서 섬과 관련된 지질과 지리 등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들을 풀어낸다. 소설 전반부 네 개의 스케치는 주로 갈라파고스 제도의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자연 현상으로부터 받은 느낌을 독자에게 전해준다(Beecher 91). 하지만 갈라파고스의 자연 현상은 지질학

이나 동물학의 분류로 설명이 불가능함을 멜빌은 강조한다. 나머지 여섯 개의 스케치 「구축함, 그리고 도망친 배」("The Frigate, and Ship Flyaway"), 「배링턴 섬과 해적」("Barrington Isle and the Buccaneers"), 「찰스 섬과 견왕」("Charles's Isle and the Dog-King"), 「노포크 섬과 출라 과부」("Norfolk Isle and the Chola Widow"), 「후즈 섬과 은둔자 오벌루스」("Hood's Isle and the Hermit Oberlus"), 「도망자, 조난자, 외톨이, 묘비, 기타」("Runaways, Castaways, Solitaries, Grave-Stones, etc.")는 갈라파고스 제도와 관련된 인간군상을 묘사함으로써 당시 사회에 대한 화자의 견해를 밝힌다.

인류 문명과 같이 시작되어 존속해 온 신화와 종교, 문학과 같은 인문 담론은 새로이 등장한 근대 과학 담론으로 인해 변화를 거듭했다. 18세기 후반에 시작된 산업혁명에 힘입어 19세기에 더욱 가속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과학 담론은 기존 사회의 구조와 질서까지 바꾸어 놓았고, 객관적 사실과 검증을 기초로 하는 자연과학적 방법론은 문학을 위시한 인문 담론에까지 적용되어, 독자들이 이성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고찰하도록 했다. 하지만 멜빌은 당시 부상하고 있던 과학 담론으로는 갈라파고스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고 있다고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 논문의 제 2장에서는 멜빌이 표면적으로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지질과 서식동물을 과학 담론으로 풀어내는 듯 하지만 동시에 과학 체계의 한계를 비판하는 전략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어 제 3장에서는 갈라파고스를 찾아온 다양한 인간의 예를 들어 군대나 정치제도 등 인간이 만든 제도를 갈라파고스의 불모성과 연결시킴으로써 멜빌이 전반적인 인간 문명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음을 분석한다.

2. 『엔칸타다스』의 과학담론 비판

멜빌은 자연을 관찰하고 그 탐구에서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는 과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대표작 『모비 딕』에서는 실제 고래를 추적하는 항해와 고래잡이 외에 고래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모아놓았다. 하지만 이런 고래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과학적이라 하기는 어렵다. 제 32장 「고래학」("Cetology")에서는 스코어스비(Scoresby) 선장과 외과의사 비일(Beale) 등의 고래에 관한 저서를 참고하여 고래를 분류한다. 또한 고래의 크기에 대해서 논하는 제 105장 「고래의 크기³⁾가 감소하는가? 고래가 사라질 것인가?」("Does the Whale's Magnitude Diminish?—Will He Perish?")에서는 길이가 무려 30미터에 달하는 향유고래가 잡힌 적이 있다는 이야기에서부터 몸집이 몇 에이커(acre)가 되는 고래가 있었다는 고대 박물학자들, 길이가 240미터가 되는 고래도 있었다는 이탈리아의 박물학자 율리세 알드로반디(Ulisse Aldrovandi, 1522~1605)까지 다양한 기록을 동원한다(Moby-Dick 533). 한 마디로 고래의 크기는 사람에 따라 모두 다르게 기록이 된다. 소설의 화자 이슈마일은 바다의 모든 고래를 다 열거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지식으로는 각 고래의 분류, 크기, 습성과 서식지 등을 모두 언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고래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멜빌의 진정한 의도는 「고래학」 장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나 체계적인 분류, 절대적 진리 등에 대한 회의를 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노동욱 89-90).

과학적 탐구의 목적이 관찰을 통해 체계적인 지식을 구축하는 것임에 반해, 멜빌은 그것에 머물지 않고 과학적인 이야기를 끌어들이면서 그것을 통해 더 많은 가능성과 다양한 관점으로 나아가고 있다. 『엔칸타다스』에서 '록 로돈도'(Rock Rodondo)⁴⁾라고 하는 탑 모양으로 생긴 바위섬을 묘사하면서 멜빌은

3) 'magnitude'는 단순한 크기뿐만 아니라 중요도, 거대함, 위대함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고래의 크기'는 이런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각기 다르게 보이는"(81) 점에 주목하는데, 이에 대해 처음에는 "그 원인이 빛에 있다"고 과학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처럼 보인다. 멜빌은 또한 록 로돈도라는 바위섬이 어떻게 빛뿐만 아니라 거리에 따라 달라 보이는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우선 30마일(mile)⁵⁾이라는 먼 거리에서 관찰을 할 때 그 섬이 "한 척의 범선"(a sail)으로 보이고, 좀 더 다가와서 4리거(league)⁶⁾ 거리에서 "실안개가 낀 황금빛 정오"(a golden, hazy noon)의 햇살을 통해 볼 때는 "눈부신 돛을 달고서 스페인 제독이 탄 사령선처럼"(some Spanish Admiral's ship, stacked up with glittering canvas) 보인다고 밝힌다(81). 하지만 이러한 빛과 거리에 따라 섬이 달리보이는 관찰을 통해 멜빌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이 아닌 주관적 상상력에 기반을 둔 다양하고 자유로운 해석이다. 이는 섬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단지 거리와 빛뿐만이 아닌 "제도 전체에 퍼져있는 마법"(enchantment which pervades the group) 때문이라고 하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81). 마지막으로 배가 섬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를 묘사할 때 멜빌은 "마법에 걸린 사령선은 순식간에 험준한 바위 탑으로 변모한다"(the enchanted frigate is transformed apace into a craggy keep)라고 하며 어떻게 마법이 깨어지고 섬의 실제 모습이 다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면서 과학적 관찰로 되돌아오는 듯 한 모습을 보인다(81). 그러나 멜빌은 다시 한 번 과학적 입장을 거부하고 상상력에 바탕을 둔 해석으로 록 로돈도에 대한 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즉, 아침이 되어 록 로돈도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사막 같은 섬으로 판명되더라도 여전히 다른 항해자들은 상상력이라는 마법을 통해 "높은 등대"(a tall light-house) 또는 "여객선의 높이 솟은 돛"(the lofty sails of a cruiser" 과 같이 다양한 해석을 끊임없이 반복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 스케치를 마무리한다(85).

하지만 다윈은 멜빌과 다르다. 록 로돈도를 "몇 마일 떨어져서 보았을 때는 두 개의 분화구가 있고, 키커 록(Kicker rock), 또는 작은 섬이 서 있다. 그리고 단 하나의 형태로 보인다. 그것은 층을 이루지 않고 조밀한 응회암으로 수지

4) 로돈도는 스페인어로 둥글다는 뜻이다.

5) 약 48km이다. 이후부터 1마일은 약 1.6km로 환산한다.

6) 약 19.2km이다. 이후부터 1리거는 약 4.8km로 환산한다.

같은 군열이 나 있다”(Darwin 1844, 98)고 다윈은 기록한다. 또한 ‘갈라파고스 제도’(Galapagos Archipelago)라는 이름을 붙인 지도를 만들고, 동시에 이 작은 섬까지 직접 손으로 그려 넣고 ‘키커 록’이라는 이름을 써넣었다(Darwin 1844, 98-101). 거리와 빛에 따라 바뀌는 록 로돈도의 다양한 모습을 마법으로 표현하거나 다양한 해석이 갖는 문학적인 비유를 통해 묘사하는 것이 멜빌의 관심사라면, 다윈은 좀 더 지질학적인 분석을 하고 지도에 이 바위를 기입하는 데에 관심을 갖는다. 바꾸어 말하자면 다윈은 대영제국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식민지로서의 가능성을 지닌 섬과 이 섬을 지도에 기입하는 일에 몰두한 것이다. 다윈은 항해기의 첫머리에서 비글호 항해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1831년 12월 27일. 대포 10문을 장착한 비글호는 피츠 로이 선장의 지휘 아래 데본항을 출발했다. 항해의 목적은 파타고니아와 티에라 델 푸에고의 측량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다. 이 탐험은 1826년 킹 선장의 지휘 아래 1830년까지, 칠레와 페루, 그리고 태평양에 위치한 섬들의 해안 조사를 수행하고 일련의 항해용 정밀시계인 크로노미터를 사용하여 세계를 일주하는 목적이었다. 1월 6일, 배는 테네리페에 도착하였지만 우리는 상륙을 허락받지 못했다. 이유는 우리가 콜레라를 옮긴다는 두려움 탓이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선상에서 그랜드 카나리아 섬의 바위투성이 능선 너머 테네리페 정상에서, 낮게 깔린 양털 같은 구름 속에서 갑자기 반짝거리며 떠오르는 태양을 보았다. 이날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수많은 소중한 추억이 담긴 첫 번째 날이었다. 1832년 1월 16일에는, 케이프 드 베르드제도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섬인 산티아고의 포르토 프라야에 닻을 내렸다.

Her Majesty's ship Beagle, a ten-gun brig, under the command of Captain Fitz Roy, R. N., sailed from Devonport on the 27th December, 1831. The object of the expedition was to complete the survey of Patagonia and Tierra del Fuego, commenced under Captain King in 1826 to 1830—to survey the shores of Chile, Peru, and of some islands in the Pacific—and to carry a chain of chronometrical measurements round the World. On the 6th of January we reached Teneriffe, but were prevented landing, by fears of our bringing the cholera: the next morning we saw the sun rise behind the rugged outline of the Grand

Canary island, and suddenly illuminate the Peak of Teneriffe, whilst the lower parts were veiled in fleecy clouds. This was the first of many delightful days never to be forgotten. On the 16th of January, 1832, we anchored at Porto Praya, in St. Jago, the chief island of the Cape de Verd archipelago. (Darwin 1839, 7)

찰스 다윈은 1835년에 갈라파고스를 방문했고, 허만 멜빌은 1841년에 도착했다. 두 사람 모두 유사한 의도를 지니고 대양을 향해하던 이십대의 청년이었다. 그들의 주요 업무는 무엇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다윈은, 연구 조사 능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식민지 방어수단을 은밀히 탐색할 비결호를 위하여 표본을 수집하고 기록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머물렀다”(Howarth 99). 멜빌이 타고 있던 배인 아쿠쉬네트호는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의 뉴베드퍼드(New Bedford)에 선적을 둔 포경선으로 갈라파고스를 지나면서 연료와 식량을 얻기 위해 잠시 해안으로 갔을 것이다. 이 해역이 고래가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을 나는 곳(Howarth 99)임을 감안하면, 당시 멜빌이 탄 배뿐만 아니라 인근을 향해하던 많은 선원들이 연안에서 낚시를 하고, 식수나 채소 같은 선용품을 구하기 위해 갈라파고스에 들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멜빌이 타고 있던 포경선은 1841년 11월까지 두 달 동안 고래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배는 채텀 섬(산 크리스토폴)에서 육 일 동안 닻을 내리고 선원 한 명이 신선한 고기 공급원으로 거북을 사냥하기 위해 상륙했다. 그 며칠이 어찌면 멜빌이 갈라파고스 땅 위에서 보낸 유일한 시간인지도 모른다.

The fishing was good at first but by November of 1841 the Achushnet had failed to take a whale for two months. The ship anchored for six days at Chatam's Isle (San Cristobal) and a crew went ashore to hunt tortoises, a source of fresh meat. Those few days may have been Melville's only time spent on Galapagos soil. (Howarth 102)

세계 식민지화라는 목표 아래 지도제작용 군함에 승선한 다윈과는 달리, 멜빌에

게 엔칸타다스는 바위가 돛을 펼친 배로 보이거나 높이 솟은 탑으로 보이는 등 다양한 시각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다. 멜빌은 인간의 육안이 받아들이는 대상의 다양함에 주의를 기울인다. 하나의 대상 혹은 현상에 대한 하나의 과학적 설명 대신, 멜빌은 다양한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고 실제로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당시의 과학 담론은 인문학을 대신하는 새로운 담론이었다. 제 2장에서는 멜빌의 본질적 관심이 과학에 대한 겉보기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갈라파고스를 특징짓는 화산지형은 지질학이 아닌, 인간의 탐욕에 관한 명상을 불러일으키는 장소가 되고, 멜빌이 묘사하는 록 로돈도의 동물학과 앨버말 섬의 통계표는 다윈의 과학담론이 구성되는 과정과 그 허구성에 대한 비판이 된다. 그래서 멜빌의 과학적 관심은 과학에 근거하여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과학의 한계를 드러내는 데에 바쳐졌다. 이와 더불어 갈라파고스에 서식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학적인 면과 통계학적인 면을 살펴보겠다.

2.1 동물학적 분류의 비판

19세기는 과학 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였지만, 멜빌은 갈라파고스에 서식하는 새, 펭귄, 물고기 등에 관한 이야기를 문학의 표현을 빌려 과학의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인간사회를 풍자한다. 네 번째 스케치 「바위에서 바라본 피스가의 조망」에서, 멜빌은 록 로돈도에서 주변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세계 항해를 세 번 하고, 높은 산봉우리 안내를 1~2년간 실습을 하고, 줄타기, 인도 요술, 영양 키우기를 각각 1~2년씩 실습하기를 마친 후에 그 경치를 즐기라고 권한다(86). 피스가(Pisgah)는 ‘높은 곳’, ‘경계 지대’란 뜻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Moses)가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후예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던, 요르단(Jordan) 강 동편의 가나안 성지와 사해를 바라볼 수 있는 높은 봉우리이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최후를 마쳤던 까

답에, 실현되지 않은 희망을 가리키는 ‘피스가 전망 또는 희망’(Pisgah view, pisgah prospect)이라는 말이 생겼다. 이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듯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 또는 장소를 의미한다. 피스가는 갈라파고스를 바라보는 멜빌의 시선이 자리한 곳이다. 섬에 상륙하여 등불을 든 과학자처럼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해변을 세밀히 관찰하던 화자는 결국 높은 조망을 가진 곳으로 시선을 옮긴다. 록 로돈도는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바다 쪽 16킬로미터 떨어져 나와 약 76미터 높이로 솟아있고(80~81), 갈라파고스의 다양한 조류를 한 눈에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록 로돈도는 단일한 과학적 정의를 거부하는 멜빌의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예일뿐더러, 이 바위 주변에 서식하는 새와 물고기들 역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멜빌의 견해를 드러낸다. 게다가 테니얼(Tanyol)은 록 로돈도가 멜빌이 문학적 견지에서 가장 명백하게 다윈식 분류체계를 해체시키고 있는 지점이라고 보았다(258). 즉 록 로돈도는 “박물학자의 진열장(the naturalist’s display case) 또는 골동품 장식장(the collector’s curio cabinet)과 유사”(Tanyol 258)하며, 거리의 원근에 따라 달리 보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 서식하는 생물들도 관찰자로 하여금 다양한 시각이 생겨날 수 있게 하는 상징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에 서식하는 새의 부리 모양이 각 섬에 따라 다른 것을 관찰하고 진화론을 출발시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갈라파고스에서 멜빌은 무엇을 보았을까? 그는 록 로돈도의 새들을 서식지의 위치에 따라 분류한다. 멜빌에 따르면, 물 가까운 곳에서 사는 새부터 시작하여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각종 조류가 저마다 다른 서식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인간사회의 계급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맨 아래 층에 사는 펭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펭귄은 물고기도 들짐승도 새도 아닌 것이 지, 수, 풍의 삼대 요소가 모두 조금씩 섞여 있다. 음식으로 보면 육류에도 어류에도 속하지 않는다. 예외 없이 인간이 발견한 생물 중에 가장 애매하고 가장 못 생겼다. 물에서는 걷고, 물에서는 노 대신에 두 팔을 사용한다. 세 요소 전부에 조금씩 손을

대고 있고, 이 모두에 약간씩은 기본적인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펭귄은 이 중 어느 쪽에도 속해있지 않다. 물에서는 뒤뚱거리며 걷고, 물에 떠서는 팔로 노를 젓듯이 움직이며, 공기 중에서는 날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린다. 마치 자연의 여신이 자신의 실패를 부끄러워한 나머지, 불품없는 자식을 땅 끝 멀리, 즉 마젤란 해협 안에, 그리고 로돈도의 멸시당한 바다층 속에 숨겨 놓고 있다.

And truly neither fish, flesh, nor fowl is the penguin; as an edible, pertaining neither to Carnival nor Lent; without exception the most ambiguous and least lovely creature yet discovered by man. Though dabbling in all three elements, and indeed possessing some rudimental claims to all, the penguin is at home in none. On land it stumps; afloat it sculls; in the air it flops. As if ashamed of her failure, Nature keeps this ungainly child hidden away at the ends of the earth, in the Straits of Magellan, and on the abased sea-story of Rodondo. (83)

짐승이나 물고기의 특질을 지녔지만 그렇게 분류가 되지 않는 새, 펭귄은 멜빌이 과학담론의 무용성을 노골적으로 지적하기 위해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다윈이 핀치 새의 몇 가지 부리를 예를 들어 상세한 분류를 한 것과는 사뭇 다르게, 멜빌은 펭귄을 물고기도, 새도, 들짐승도 아니라고 하며 펭귄을 어디에도 소속시키기를 거부한다. 펭귄은 새이지만 물이나 물, 어디서든 활동이 가능하고, 따라서 어느 한 장소로 그 서식지를 귀속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자연이 자신의 실수를 부끄러워해서 펭귄의 서식지를 마젤란 해협이나 록 로돈도로 한정시켰다는 언급은 새, 물고기, 들짐승의 속성을 골고루 지닌 펭귄의 특징을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으로 만들어 버린다. 펭귄을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비유한다면, 어느 계층 혹은 신분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인으로서의 인간이지만, 이런 인간이 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임을 암시한다. 뿐만 아니라 어느 계층에도 속하지 않는 인간은 환영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펭귄을 일정한 장소에만 서식하도록 한 자연을 들어 분명히 지적한다.

화자는 물속과 땅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펭귄에 이어 더 높은 곳에 서식하는

조류에게로 이야기를 옮겨간다. 즉, 록 로돈도에 살고 있는 새들이 차례로 묘사 되는 것을 살펴본다.

바위층계를 하나씩 올라감에 따라, 우리는 탑의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등급 순위에 의해서 차례대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알게 된다. 뱀새, 검은 반점 습새, 어치, 바다-닭, 향유고래 새, 갈매기, 온갖 종류의 새들이 왕좌, 왕자좌, 권력자좌 등의 지위 순으로 아래 계층을 지배한다.

As we still ascend from shelf to shelf, we find the tenants of the tower serially disposed in order of their magnitude:—gannets, black and speckled haglets, jays, sea-hens, sperm-whale-birds, gulls, of all varieties:—thrones, princeddoms, powers, dominating one above another in senatorial array. (83)

화자가 관찰한 새의 분류는 서식처에 따라 나뉘는데, 바꾸어 말하자면, 조류는 인간사회와 마찬가지로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다윈처럼 먹이에 따라 부리의 모양을 구분하는 그런 분류가 아니라, 오로지 거주지의 높낮이가 새의 등급을 결정하며, 그 등급은 권력과 맞물려 있다. 특히 왕권이나 권력은 세습화되고 있다. 록 로돈도에 서식하는 조류의 계층적 질서와 분류를 언급하면서, 펠빌은 인간 사회의 계급질서, 특히 미국의 노예제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노예를 부리는 자와 그의 지배를 받는 노예로 구분할 수 있는가? 이는 어떤 생물학적 분류로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이며, 이런 인위적인 인간 계층의 구분은 핑귄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의미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계급이라는 인위적인 기준에 따라 사회에서의 위치가 정해지고, 이 계급 사이의 이동은 불가능하다. 이런 계급 질서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은 사회적 불안의 요소로 간주된다.

한편 호화로운 자수에는 언제나 곤충이 나는 모습이 묘사되듯이 악천후를 예고하는 바다제비, 혹은 마더 캐리의 아기새(Mother Cary's chicken)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새가 주위를 날면서 계속해서 도전과 경종을 울리고 있다. 만약 이 신비의 바닷새가 빛같이 화려하기만 했다면 나비 같은 날갯

것으로 인해 바다의 나비라 불려도 상관없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선미 바로 뒤를 쫓아오면서 짹짹거리며 지저귀는 울음소리가, 마치 갈라진 틈에서 들리는 죽음의 짹짹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소작농처럼, 선원들에게는 불길한 새로 여겨진다. 이 새가 엔칸타다스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자체가 뱃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 제도의 음울한 마력을 적잖게 심어주는 원인이 된다.

[W]hile, sprinkled over all, like an ever-repeated fly in a great piece of broidery, the stormy petrel or Mother Cary's chicken sounds his continual challenge and alarm. That this mysterious humming-bird of ocean—which, had it but brilliancy of hue, might, from its evanescent liveliness, be almost called its butterfly, yet whose chirrup under the stern is ominous to mariners as to the peasant the death-tick sounding from behind the chimney jamb—should have its special haunt at the Encantadas, contributes, in the seaman's mind, not a little to their dreary spell. (83-84)

바다의 나비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쾌활하게 날아다니는 바다제비는 악천후를 예고하는 울음소리로 인해 자신과의 의지와는 무관한 채 불길한 새로 낙인 찍힌다. 항해 중에 만나는 악천후는 개혁이나 혁명이 일어나기 전과 혁명 기간 동안의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상징한다. 악천후는 바다제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며, 선원들에게 이를 알려주는 것이 잘못된 일도 아닌데, 오히려 바다제비의 울음소리는 선원들에게는 기피의 대상이 된다. 바다제비의 울음소리는 위정자 내지 권력자의 악덕이나 악행을 참지 못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꺾기나, 양심적인 소리의 표출로서 멈추지 않는 저항정신을 나타낸다. 계급과 재산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만큼이나, 사회나 제도의 변혁을 원하는 사람들 또한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멜빌이 록 로돈도의 새를 분류하는 방식은 다윈의 방식과는 다르다. 새들의 고유한 특질에 따라서가 아니라 화자는 록 로돈도를 하나의 인간 사회로 보고 새들에게 인간의 계급을 부여한다. 이런 분류의 방식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위치한 인간사회와 특히 노예제를 돌이켜보게 만든다.

이어서 바위 밑의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로 화자의 시선이 옮겨간다.

인간이 던진 낚시가 바다 수면에 닿자마자 수백 마리가 넘는 얼빠진 물고기들이 포획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몰려든다. 불쌍한 로돈도의 물고기들이여! 자신감으로 희생이 되어버리니,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어리석게 신뢰해버리는 자들 중의 하나가 되어버렸구나.

No sooner did the hook touch the sea, than a hundred infatuates contended for the honor of capture. Poor fish of Rodondo! in your victimized confidence, you are of the number of those who inconsiderately trust, while they do not understand, human nature.
(84-85)

여기서 물고기의 어리석음을 얘기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은 적이 없었던 곳에서 물고기는 낚싯바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호기심으로 먹이를 물기위해 달려든다. 물고기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인간이 던져주는 먹이를 온몸을 바쳐 활각 달려들어 마침내 낚시를 물고 만다. 물고기들은 미끼 속 낚싯바늘이 어떤 용도의 물건인지도 모른 채 인간이 던지는 먹이를 먼저 물려고 서로 경쟁을 벌이기까지 한다. 한낱 물고기를 억울한 죽음으로 물고 가는 인간이야말로 오히려 잔혹한 포식자가 아닐까? 화자가 인간이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는 대상이자 생명체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물고기 이야기는 미국의 상황에 대한 비유가 된다.

1854년 『엔칸타다스』가 발표된 이후, 미국에서는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하였고, 1863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을 선언하였다. 노예제에 대한 옹호론과 해방론 같은 이견으로 인하여 논란이 분분한 시기였다. 테니얼은 『엔칸타다스』가 인종의 분류를 과학적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하던 시기에 출판되었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한다(256). 흑인과 백인이라는 인종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주 집단들이 속속 도착하면서, 미국에서의 인종의 분류는 더욱 심각하고도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언뜻 보면 물고기를 미끼로 쫓아 잡는 낚시질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 또 미개인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흑인

을 위시하여 온갖 유색인종들을 데려다 노예로 삼는 제도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화자는 청정한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마구 잡는 이들을 노예제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합법적 직업인 노예사냥꾼에 비유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인은, 아프리카 같은 미개지에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바다 속 물고기만큼이나 미개인이 많다고 여겼던 것 같다. 그리고 수많은 유색인종이 노예사냥꾼 내지 상인의 말에 속아서 아프리카를 떠나 미국 땅에 도착했다.

수면 아래 바위는 벌집모양을 한 동굴 같고, 요정의 무리 같은 물고기 떼들이 숨을 만한 미로를 제공했다. . . . 눈요기를 위해 금붕어를 담은 최고가의 유리 어항에 담아도 잘 어울렸을 것이다.

Below the water-line, the rock seemed one honeycomb of grottoes, affording labyrinthine lurking-places for swarms of fairy fish. . . . and would have well graced the costliest glass globes in which gold-fish are kept for a show. (84)

미국 바깥 이국의 땅에서 잡아온 검은빛의 인종을 철창 속에 가두어 놓고 필요에 따라 일을 시키고 있는 미국의 노예제를 멜빌이 비꼬는 장면이다. 이런 록로돈도의 계층적 질서에서 최상층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단지 동물로서 머물지 않는 새, 알바트로스가 있다. 이는 회색을 띄며, 사람으로 치면 흑인도 백인도 아닌 것이다. 백인 가운데서 노예제를 옹호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우리가 아주 높은 곳으로 눈을 돌리면 고니, 또는 이례적으로 그렇게 불리는 회색의 알바트로스 새가 눈에 들어온다. 이 새는 외견상 회색이며 추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귀신이 나오는 듯 한 희망봉과 케이프 혼에 떠돌아다니는 백설의 유령이며, 이야기로 전해오는 그런 새와는 달리 보기 흉하고, 시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Higher up now we mark the gony, or gray albatross, anomalously so called, an unsightly, unpoetic bird, unlike its storied kinsman, which is

고니는 새뮤얼 콜리지(Samuel Coleridge)의 『노수부의 노래』(*The Rime of an Ancient Mariner*)에 묘사된, 선원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백색의 알바트로스가 아니다. 고니의 색상이 회색임에도 불구하고 '백설의 유령'으로 표현되며, 그 추악한 모습이 강조될 때, 독자들은 백인을 떠올리게 된다. 발아래 바다 속에는 아름답고 무수한 물고기 떼가 마치 '요정의 무리'(fairy fish)(84)같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록 로돈도의 하늘을 날고 있는 고니를 추악하다고 묘사하는 것은, 멜빌이 미국 사회의 지배층인 백인들과 피지배층인 흑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록 로돈도의 새와 물고기를 통해, 멜빌은 과학적인 동물학의 분류는 더 이상 이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단정 지으며, 오히려 인간의 계급 사회, 특히 미국의 노예제를 비유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멜빌은 생물들에게 길고 어려운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과학자들을 조롱하는 것을 좋아했다. 멜빌은 『모비 딕』에서 고래의 크기를 책의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마르디』(*Mardi*)에서는 암석층을 철학자 바바난자(Babalanja)로 묘사하여 고의적으로 웃음을 자아내게 한 경우가 많았다(Hillway 415). 멜빌은 과학적 관점 대신, 문학적으로 색다른 재미를 주는데 더 관심을 갖는다. 환상의 섬인 록 로돈도의 모양이 시간과 환경에 의해 바뀐다는 것은 멜빌이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과학적 탐구라고 하지만, 대상은 단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달리 나타난다. 그러나 그 변화의 순간이 지나면 본래대로 되돌아오는 것은 자연의 이치만큼이나 당연하다.

생김새나 색상, 소리와 같은 일반적 분류의 기준에 따라 동물을 갈래짓는 다윈 식의 '과학적' 분류는 멜빌의 『엔칸타다스』에서는 인간의 이기심에 봉사하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 드러난다. 지배자의 의도에 따라 계급 사회와 노예제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분류는 멜빌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분류되기를 거부하는 펭귄을 통해, 요정 같은 물고기를 어항에 담아 전시하고 싶어 하는 화자를 통해, 멜빌은 과학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인간의 분류를 비판한다.

2.2 통계에 대한 불신

앨버말(Albemarle) 섬은 갈라파고스 제도 가운데 가장 큰 섬으로서 중생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스케치 4」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앨버말 섬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의 통계표이다. 과학에서는 주로 통계나 지도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그 관찰의 결과를 표시한다. 그 이유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실험이나 관찰이 이루어졌다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이다. 흥미로운 것은 멜빌보다 6년 앞서 갈라파고스를 방문한 다윈 역시 『비글호 항해』(1839)와 1871년에 간행된 『비글호 항해』 등의 연구보고서에서 갈라파고스 제도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에 관한 통계표를 남겼다는 점이다. 멜빌이 앨버말 섬의 거주자에 대한 통계표를 만든 것은 다윈의 통계표에 영향을 받은 것이 거의 분명하지만, 두 개의 통계표를 자세히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그 의미나 효과는 엄청난 차이를 드러낸다. 멜빌은 다윈의 ‘과학적’ 통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조롱하는 듯이 보인다. 과학적 탐구의 한계뿐만 아니라 과학을 표방하지만 오류로 가득한 자료가 어떻게 오용되는지 그 위험성을 멜빌이 경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절에서는 다윈의 갈라파고스 섬의 종에 관한 통계와 멜빌의 앨버말 섬의 통계를 비교하여 멜빌의 과학적 통계에 대한 불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참 과학자였던 다윈으로서는 정밀한 세계 지리 측량을 비롯하여 갈라파고스 제도에서의 생물 채집이나 지질 조사 탐험은 아마도 대영제국의 식민지 확장 프로젝트에 기여할 기회로 여겨졌을 것이다. 현지에서 찾아서 잡아 모은 동물과 식물을 박제와 표본으로 만들고, 언거나 캐거나 수집한 광물을 본국으로 배달시킨 상자만 해도 수천 개가 넘었다. 다윈은 그의 여행기에서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다양한 동물과 식물, 그 하위분류로 파충류, 조류, 어류, 해조류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종을 발견했다고 적고 있다. “동물학으로 마무리를 짓자면, 내가 찾아낸 15종의 바닷물고기는 모두 새로운 종이다. 12개의 속에 속하고 널리 분포되어 있다”(『비글호 항해, 1839』 566)는 식으로, 갈라파고스에서 자신이 찾아낸 동물을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의 순서로 열거하며 자신의 관

찰 결과를 자랑스럽게 일지에 기입하였다.

이 갈라파고스 제도의 자연사는 매우 특이함과 동시에 충분히 주목을 받을 만하다. 유기적 산물의 대부분은 토착 생물들로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제도 내의 섬에서도 생물들 간에 차이가 있다. . . 갈라파고스 제도는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세계 혹은 아메리카에 부속된 위성과 같다. . . 제도의 크기가 작다는 것을 고려할 때, 토착 생물의 숫자가 많았는데, 그리고 제한된 범위에 있다는 것에 더 놀라움을 느낀다.

The natural history of these islands is eminently curious, and well deserves attention. Most of the organic productions are aboriginal creations, found nowhere else; there is even a difference between the inhabitants of the different islands. . . The archipelago is a little world within itself, or rather a satellite attached to America. . . Considering the small size of the islands, we feel the more astonished at the number of their aboriginal beings, and at their confined range. (Darwin 1839, 546)

다윈은 제도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성에 놀라움을 표시하였지만, 이렇게 소개한다. 어떻게 그 종의 개수를 조사했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다만 방문일자를 적고 있는데 그 기록이 판본마다 상이하다. 다윈은 비글호를 타고 제도 전체를 둘러보며 조사를 하였고, 주요한 섬에는 자신이 직접 1835년 9월 15일, 17일, 23일, 29일 그리고 10월 8일 총 5번 방문했다고 적혀있다(Darwin 1839, 538-46). 또한 5년 후 출간한 『비글호 항해, 1844』의 98쪽에는 다윈 자신이 직접 방문을 했지만 구체적 일자는 적혀있지 않은 채 총 4번 방문한 것으로만 기록되어, 방문횟수가 판본에 따라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마치 새로운 땅을 발견해서 지도에 기입하는 탐험가처럼 다윈은 갈라파고스 제도에 상륙한 1835년 9월 15일 이후, 제도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섬의 생물을 조사하고 난 후에는 자신이 관찰한 종의 숫자를 가지고 통계표를 만들어 내었다(Darwin 1839, 574). 이 통계표에서 다윈은 갈라파고스 제도 전체와 각 주요 섬들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과 세계 전체에서 발견되는 종의 숫자를 열거하고 있다.

<표 1> 다윈의 『비글호 항해, 1839』 통계표

섬 이름	총 종의 수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종의 수	갈라파고스 제도에만 있는 종의 수	한 섬에만 있는 종의 수	갈라파고스 제도 내에서, 하나 이상의 섬에 있는 종의 수
제임스	71	33	38	30	8
앨버말	44	18	26	22	4
채텀	32	16	16	12	4
찰스	68	39 (외래종 제외)	29	21	8

※굵은 글씨는 필자 강조.

<표 1>을 설명하기에 앞서, 종(species)의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물의 종(species)이란 생물 분류의 기본 단위이다. 일반적으로 생물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이것에 해당한다. 종의 정의로서는 개체 사이에서 교배(交配)가 가능한 한 무리의 생물로서 더욱이 다른 생물군과는 생식적(生殖的)으로 격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반드시 이렇게 명쾌하게 선이 그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통 우리가 야외에서 보는 생물은 형태적으로 색채를 포함하여 종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슷한 종이라도 일정한 차이가 있어서 두 종의 중간형이나 잡종이 생기는 일은 없으나, 그 중에는 암수 또는 개체 사이에 상당히 현저한 형태 차이가 있으면서도 서로 교배하여 자손을 남기는 종도 있다. 또, 매우 비슷하며 외견상으로는 거의 구별할 수 없지만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종도 있다. 종의 분화에는 지리적인 격리가 큰 요인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나, 지방적으로 분화하여 많은 아종(亞種)을 형성하며 두 극단적인 아종 사이에서는 종에 해당하는 분화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 (『두산세계대백과』 23권, 335)

그러므로 갈라파고스 제도에서처럼 대륙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체적인 진화를 거듭해온 동물들은 다윈이 핀치 새의 관찰로 확인했던 것처럼 같은 종 내에서도 다양하게 분화를 하였다. 이런 까닭에 다윈이 정성을 기울여 제작한 표의 효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짐에 따라 숫자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표로 만들어지고 나면, 그 표는 관찰자이자 새로운 종의 발견자인 다윈의 권위를 확립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듯이 보인다.

아래의 통계표 <표 2>는 1871년 판 『비글호 항해』에 수록된 것이다. 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를, 정확한 체류 기간은 불분명하지만, 방문한 횟수를 최대한 길게 감안하더라도 통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단 한 번에 알 수 있다 (Darwin 1871, 396). 이에, 다윈이 만든 두 개의 통계표를 놓고 차이점과 유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표 2> 다윈의 『비글호 항해, 1871』 통계표

Names of Island	Total No. of Species	No. of Species foun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No. of Species confirmed to the Galapagos Archipelago	No. confirmed to the one Island.	No. of Species to the Galapagos Archipelago, but found on more than the one Island.
J a m e s Island	71	33	38	30	8
Albermarle Island	46	18	26	22	4
Chatham Island	32	16	16	12	4
C h a r l e s Island	68	39 (or 29, if the probably imported plants be subtracted)	29	21	8

※<표 1>은 편의상 한글로 번역하였지만, 원문과의 비교를 위해 <표 2>는 영어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왔다. 굵은 글씨는 필자 강조.

<표 1>과 <표 2>의 서로 다른 점은, 앨버말 섬에 있는 총 종의 수이다. 1839년에 발간된 총 732쪽의 『비글호 항해, 1839』 가운데 574쪽에 기재된 이 <표 1>에서는 앨버말 섬에 서식하는 총 종의 수가 44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총 529쪽으로 된 1871년 판 가운데 396쪽에 기록된 <표 2>에서는 앨버말 섬에서 발견한 총 종의 수는 46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리해보면, 두 개의 보고서 가운데 최소한 하나는 틀린 셈이다. 또는 두 개의 보고서 모두가 틀린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출판사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일 수도 있다. 이세기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보고서의 진위를 파악하기는 힘들뿐더러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미 다윈이 확신을 갖고 있었던 종의 수는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두 보고서의 숫자가 서로 일치한다 하더라도, 과학적 수치는 한 때만 유효한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표 1>과 <표 2>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외에, 의문점은 또 있다. 다윈은 과연 얼마동안 갈라파고스 제도에 머물렀는지 비교해보자. 약 5년간의 세계일주 도중에 갈라파고스 제도에 다윈 자신이 직접 상륙한 일자의 합산이 각 보고서마다 달리 기재되어 있다. 『비글호 항해』 1839년 판과 1871년 판에는 9월 15일, 17일, 23일, 29일, 10월 8일이라고 일자가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다 (Darwin 1839, 538-44; Darwin 1871, 372-76). 즉 누군가가 최소한 5일은 조사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1844년 판 『비글호 항해』 98쪽에서는 다윈 본인이 직접 표본을 채집한 횟수가 네 번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보고서에는 34일간을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다(Tanyol 247). 즉 네 권의 보고서 가운데 세 권의 보고서에서 채류 기일이 서로 다른 점을 볼 때, 그가 직접 섬에 상륙했는지, 그가 표본을 직접 채집했는지의 사실여부는 불분명하다.

어느 쪽이 사실이든 간에 다윈이 조사를 했다는 '5일'의 기간 동안, 예를 들

어 제임스(James) 섬에서 살고 있는 30종의 생물들을 다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바꾸어 말하자면 다윈 역시 다른 사람의 관찰 기록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발견된 종의 숫자는 자신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이들이 조사한 수치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다윈이 승선한 측량선은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를 실측하기 위하여 항해 중이었다. 그 누구보다도 지리적 크기를 잘 아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측량단으로서는 종의 수를 정확하게 헤아리는 일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임을 알고 있었을 터였다. 문제는 아무리 세밀하게 조사하고 관찰을 한다고는 하나 이런 조사의 정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은 진위 여부는 관계없이 이 표를 만들었고, 표를 통해서 그는 자신을 갈라파고스의 생물에 대한 권위자로 확립시켰다. 한편, 다윈의 항해기를 탐독했던 멜빌은 「스케치 4」에서 다윈이 만든 표와 유사한 통계표를 만들었다(90).

<표 3> 멜빌의 앨버말 섬의 거주자 통계표

인간	무
개미핥기	불명
인간-협오자	불명
도마뱀	500,000
뱀	500,000
거미	10,000,000
불도마뱀	불명
악마	위와 같음
합계	11,000,000

이미 멜빌은 「스케치 1」에서 섬에는 엄청난 수의 파충류만이 있고 인간은 살 수 없는 곳임을 밝혔지만, 이 내용을 다시 표로 바꾸었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생명체는 오직 거북, 도마뱀, 엄청나게 큰 거미, 뱀, 그리고 이국풍의 자연에 사는 괴이하고 이례적인 동물인 아구아노 같은 파충류뿐이다. 어떤 사람의 목소리도, 어떤 소의 울음소리도, 어떤 개의 울음소리도 없고, 여기에 살고 있는 파충류의 쉼쉼거리는 소리뿐이다.

Little but reptile life is here found: tortoise, lizards, immense spiders, snakes, and that strangest anomaly of outlandish nature, the *aguano*. No voice, no low, no howl is heard; the chief sound of life here is a hiss. (71)

표의 구성 요소를 들여다보면 터무니없는 표임을 단번에 알 수 있다. 멜빌이 제시한 앨버말 섬의 거주자와 동물 조사표는 숫자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과학적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지극히 비과학적이며, 풍자적이다. 동시에 각 항목들은 극히 주관적이다. 예를 들어 ‘인간-혐오자들’(Man-haters)과 ‘악마’(Devils)는 과학적 통계의 카테고리 보기 어렵다. <표 3>에서는 총 여덟 종류의 거주자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한 명도 거주하지 않는 것(none)으로 밝혀진다. 대신에 ‘불명’(unknown)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그 숫자를 밝히지 않은 악마, 불도마뱀, 인간-혐오자들, 개미핥기 등을 제외하고, 거미, 뱀, 도마뱀의 합산은 11,000,000이다.

이 표에서 멜빌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 우선, 이 무인도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도마뱀과 뱀, 그보다 몇 십 배가 더 많은 거미가 거주자를 이루고 있다. 다윈은 1839년의 통계표(<표 1>)에서 앨버말 섬에 44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고 밝혔다. 다윈이 자신이 관찰한 생물의 형태와 지형적 특성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에 비해, 멜빌은 생물을 분류하고 이들의 숫자를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하여 결국 인간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는 섬의 본질을 드러내려고 하였다(Tanyol 254). 다윈은 신뢰할 수 없는 통계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 갈라파고스를 과학의 담론 안으로 끌어들이고, 자신을 이런 과학담론의 권위자로 만들지만, 멜빌은 이런 통계표를 아예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고, 오히려 비웃는 듯하다. 멜빌의 통계표는 통계학으로 대표되는 과

학담론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과학적 데이터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데 치중한다. 어떻게 종의 개수를 세는 것이 가능한가? 멜빌은 자신의 통계표를 통해 종의 개수를 산술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개체의 수도 500,000 혹은 10,000,000이라 적힌 숫자는 도마뱀과 뱀, 거미가 많다는 것을 의미할 뿐,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숫자가 아니다.

다윈식의 분류체계—인구 조사, 지도 그리고 박물관처럼—가 그가 관찰한 생물 형태와 지형을 묘사하고, 친숙하게 만들어 이들을 통제하게 한다면, 멜빌은 『엔칸타다스』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한다. 대신 생물체와 지형을 마술적이고, 분류불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도달할 수 없게 만든다. 제도에 대한 멜빌의 묘사는, 어느 면에서는 백과사전적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부정형이다.

If—like the census, map, and museum—Darwin’s taxonomies allow him to describe, make familiar, and thus take control of the life forms and geographical features he observes, Melville takes a fundamentally different approach in *The Encantadas*, resorting to an imprecision that defamiliarizes the island, rendering them magical, unclassifiable, and ultimately unattainable. Whereas Melville’s descriptions of the islands are in certain ways encyclopedic, they are in others amorphous. (Tanyol 254)

과학은 오랫동안 인간의 세계 인식을 위한 토대였던 인문학을 대신하는 새로운 담론으로 등장하였다. 멜빌은 『엔칸타다스』에서, 이런 과학담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장에서 살펴본 동물의 분류나 섬의 거주자에 대한 통계 등은 ‘객관적’이라고 생각되는 과학의 체계가 얼마나 주관적 인지를 보여준다. 멜빌의 대안적 분류법은 동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분류가 통용되고 있는 인간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간다. 멜빌의 분류 체계는 언제 어디서나 동물들, 그리고 인간의 엄격한 범주들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Tanyol 263), 이는 『엔칸타다스』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보여진다. 록 로돈도라는 자연물이 다양한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이듯이, 멜빌은 절대적 기준에 기반한 듯이 보이는 과학담론이 실제로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 분류를 채택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과학담론의 허구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인간 사회라는 텍스트 또한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며, 또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엔칸타다스』의 후반부에서 갈라파고스를 찾은 인간들을 예로 들어 이들을 타락으로 이끌어간 문명에 대한 비판을 내비친다.



3. 엔칸타다스의 방문자들

『엔칸타다스』의 후반부는 갈라파고스의 자연에서 인간으로 그 초점이 옮겨 간다. 갈라파고스를 방문한 사람들, 혹은 거주민들은 어떤 공통점을 지니고 있을까? 이 질문은 바다와 섬이라는 공간이 지니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들의 공통점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 근대 이후 합의된 사회의 질서를 뛰어넘는 어떤 행위들이 벌어지는 공간으로서 바다는 위법적인, 일탈적인, 초법적인 곳으로 묘사되어왔다. 갈라파고스의 방문자들 중에는 단순히 물과 식량, 땀감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지나가던 배의 선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공간인 섬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고립된 섬의 특성 때문에 섬을 방문했다고 할 수 있다.

아마 근대에, 세상 어디에서도 이처럼 많은 외톨이들을 숨겨주었던 곳은 몇 군데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섬들이 먼 바다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가끔씩 이곳을 찾는 배들은 대부분이 포경선이거나 아니면 지루한 오랜 세월 항해를 한 배로서 사람이 체정한 법의 감독이나 법에 대한 기억에서 상당히 자유로웠던 탓이다.

Probably few parts of earth have, in modern times, sheltered so many solitaires. The reason is, that these isles are situated in a distant sea, and the vessels which occasionally visit them are mostly all whalers, or ships bound on dreary and protracted voyages, exempting them in a good degree from both the oversight and the memory of human law. (133)

금전에 밝은 사람, 칼을 잘 쓰는 사람, 배를 탈주한 사람 등등 온갖 방문자들이 섬에서 은신하기를 원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게 된다. 하여튼 배에서 자진해

서 내리거나, 섬으로 숨어든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갈라파고스를 거주지로 선택했던 인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엔칸타다스』의 후반부를 여는 「스케치 5」는 미국의 군함 에섹스(Essex) 호가 1813년 록 로돈도에서 이상한 배 한 척과 조우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강한 조류로 인해 에섹스 호가 록 로돈도로 떠밀려 가는 상황에서, 영국 포경선으로 추정되는 이 배는 센 바람을 타고 항해를 한다. 에섹스 호가 조류를 겨우 벗어나 이 배를 추격하자, 정체불명의 배는 미국의 국기를 게양했고, 잠시 후에는 영국의 국기로 바뀌 단다. 추격 끝에 에섹스 호에서는 보트를 내려 다가가려 하지만 괴선박은 돛을 올려 도주했고, 그러는 사이 에섹스 호는 바람이 멎어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이 수수께끼의 배—아침에는 미국 국적, 저녁에는 영국 국적선이 되고, 바람 한 점 없는 바다에서 홀로 바람을 잔뜩 머금은 채 돛을 활짝 펼친—는 결코 다시 볼 수 없었다. 분명히 마법에 걸린 배였고, 최소한 수병들은 그렇다고 맹세했다.

This enigmatic craft—American in the morning, and English in the evening—her sails full of wind in a calm—was never again beheld. An enchanted ship no doubt. So, at least, the sailors swore. (95)

1783년 9월 3일 파리조약(Treaties of Paris)으로 미국의 독립전쟁은 종결되고, 영국은 미국의 완전한 독립을 승인하였다. 1813년이라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고, 양국은 해상권을 둘러싸고 두 번째 독립전쟁으로 불리는 제 2차 영미전쟁(1812~1814)을 벌이던 중이었다. 이 에피소드의 진실은 무엇일까? 공해라고 할 수 있는 태평양의 갈라파고스에서 미국 군함은 의심스러운 배를 보게 되자 당연하게 영국 국적의 배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 에섹스 호는 적국인 영국의 포경선을 추격하려 했으나 물살이 빨라서 추격에 실패하고 만다. 미국 해군의 추격을 받은 영국의 포경선은 갑자기 성조기를 올리고 에섹스 호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다가 적국의 배는 순풍을 받아 미국 국기를 내리고 영국 국기를 올린 다음 서쪽으로 멀어졌다. 반면에 추격선은 무풍지대를 만난다. 이것이 바로 수수께끼인 것이다. 문제는 록 로돈도의 조

류와 바람이다. 바위 쪽으로 흐르면서 에섹스 호를 좌초시킬 듯이 위협하는 조류에, 바람조차 불지 않아 배의 추격은 불가능하다. 화자는 제 2차 영미 전쟁 기간 동안 태평양에서 발생한 이 사건이 “미 해군의 역사에서 가장 기이하고 충격적인”(95) 사건으로 기록되었다고 전하면서, 에섹스 호가 이후 많은 배들을 나포하고 여러 바다와 섬을 방문했으며, 페루의 발파라이소(Valparaiso) 항에서 벌어진 두 척의 영국 군함과 “유령과의 싸움에서 용감하게 포기했다”(valiantly gave up the ghost fighting)(95)는, 즉 승산 없는 전투에서 항복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한다.7)

이 발파라이소 전투가 영국 해군의 승리로 끝났다는 사실로 보아, 록 로돈도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의 내막도 짐작해볼 수 있다. 왜 한쪽 배에는 바람이 불어 도주를 하는데, 에섹스 호에는 바람이 불지 않았는지, 아무리 쫓아가도 왜 에섹스 호가 따라잡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 포터 선장은 그곳이 엔칸타다스였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갖다 붙였다. 결국 적선을 추격하는 입장의 수병과 선장으로서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탓하지 않고 애매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자연현상 또는 불가사의한 일로 치부한다. 에섹스 호에 불리한 진술이 될 것 같으면, 마법을 그 원인으로 돌리는 것이 에섹스 호의 선원들과 선장이다. 「스케치 5」의 시작부터 화자는 계속해서 ‘마법’(enchantment)이나 ‘주문에 걸린’(spell-bound)과 같은 표현으로 에섹스 호의 상황을 전하며, 상대편 배는 결국 ‘수수께끼의 배’(enigmatic ship), 또는 ‘마법의 배’(enchanted ship)로 결론지어진다. 인간의 의지로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손쉽게 ‘마법’이라는 것이 그 이유로 들먹여지는 것이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엔칸타다스로서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문명이나 과학의 이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다. 앞의 장에서 우리는 멜빌이 과학담론으로 자연을 구속하고 정의하려는 상황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았다. 마찬가지로 멜빌은 『엔칸타다스』의 후반부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나 군대와 같은 제도의 허구성과 무용성을 보여준다. 찰스 섬에서 완벽한 군주가 되기를 원했던 견왕(Dog-King)과 후즈 섬에서 은둔자로 지내려 했던 타락한 인간 오벌루스(Oberlus)를 통해 제도와 개인의 관계를 보여주며, 인간에 대한 규정 자체

7) 발파라이소 전투 결과, 에섹스 호는 결국 영국 해군 소속의 군함이 되었다.

가 무의미함을 보여준다. 즉, 한 인간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엔칸타다스』의 후반부를 관통하고 있는 관찰의 대상은 인간이다. 멜빌은 다양한 인간제도를 관찰의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이는 인간들 즉, 시인이면서 목수인 해적, 불쌍한 과부이면서 선원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혼혈의 후닐라(Hunilla), 도덕적으로 타락한 듯이 보이지만 타자의 시각에만 그렇게 보일 뿐인 사람들처럼 마법의 섬에서 인간은 계속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시험하고 바꾸어 보임으로써, 분류체계에 저항하는 갈라파고스의 동물들처럼 이들은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조정하게 만든다.

3.1 사회와 개인의 타락

『엔칸타다스』의 후반부를 구성하는 여러 스케치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묶을 수 있겠지만, 우선 인간의 타락이라는 주제를 보여주는 두 가지 스케치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스케치 7」에 등장하는 견왕과 「스케치 9」의 은둔자 오벌루스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타락을 보여준다. 한 사람은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자 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폭력과 반란으로 변질되어버린 경우로서 제도상의 결함으로 인한 사회의 전반적인 타락을 다루고 있다. 반면에 다른 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은둔자로 살다가 폭력과 간계로 점차 포악한 인간으로 변해가는 오벌루스는 개인의 타락과 근본적인 인간의 선악문제를 이야기한다.

3.1.1 견왕의 정치적 실험

「스케치 7」은 불모지를 개척한 어느 통치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때 독립 운동가였던 크레올(Creole)⁸⁾ 사람 호세 빌라밀(Jose Villamil)이 페루(Peru)

8) 서인도 제도나 남미의 초기 정착민의 후예. 또는 미국 남부에 정착한 프랑스나 스페인 정착민의 후예.

정부로부터 급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갈라파고스 제도에 대한 양도 및 소유 권리를 요구한다. 그는 마법의 섬들 가운데 하나인 찰스 섬의 소유권을 얻게 되었고, 미래 왕국의 신하가 될 자들을 모집한 결과 총 80여 명의 남자와 여자를 모았고, 서너 마리의 소와 염소, ‘훈련된 개 기갑부대’(by a disciplined cavalry company of large grim dogs)를 데리고 찰스 섬으로 이주하였다(101).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왕은 백성을 불신하고 오로지 입도할 때 데리고 간 개들로 이루어진 친위부대만 믿게 된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통치자의 신뢰를 받을 수 없었고, 마침내 새로운 입주민들을 선호하던 왕을 배신하기까지 이르게 된다. 처음에는 거주자들끼리의 반목과 질서로부터 시작했던 작은 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하고 끝내는 몇 명의 사람과 친위견도 죽게 된다.

결국 건왕은 추방되었고, 전쟁 승리자들은 공화국(a Republic)을 선포하였다(103). 쫓겨난 건왕은 페루에 머무르면서 엔칸타다스의 자신의 왕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공화국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싶어 한다. 그는 자신을 추방한 이들이 뉘우치고 다시 자신을 왕으로 모시러 오기를 기대하지만, 공화국은 민주주의가 아닌 ‘항구적인 폭동체제’(permanent Riotocracy)(104)가 되어 불법 외에는 법이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Albrecht 473). 이 에피소드는 각양각색의 입국자들이 서로 힘을 뭉쳐 불모의 땅을 개척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해주는 동시에, 신생국가 미국이 처해있던 문제의 어려움을 던지시 제시하는 듯이 보인다.

개들로 이루어진 연대를 거느렸던 찰스 섬의 건왕 이야기는 『엔칸타다스』의 이야기 중에서 사실에 기초한, 가장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로 평가된다(Albrecht 473). 본국인 페루와는 멀리 떨어진 갈라파고스는 건왕이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기에 적당한 곳으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찰스 섬에서의 정치 실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실패한다. 크레올 인은 섬에 도착한 직후 인구 증대를 위하여 결혼 장려책을 실시하고, 외국 포경선의 선원을 배로부터 탈주시키고 신하로 임명한다. 섬에 정착한 배로부터 탈주하거나 섬나라 사람의 핏에 빠져 스스로 하선하는 선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새로운 왕국 건설을 위해 배를 탄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의 움직이는 국가인 항해중인 배에 소속되어있는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찰스 섬에 상륙한다. 왕이 추방당한 이후에도

선원들이 계속 섬에 모여들어 섬은 무법자들에게는 자유의 이름으로 그들이 원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자 도망자들의 집이 되어버렸다고 하는데, 원래 엔칸타다스의 속성이었던 화산암으로 생겨난 불모지라는 이름에 걸맞은 곳이 되어버렸다. 흥미로운 것은 섬에서의 생활에 싫증이 나자 일부는 옆의 섬으로 건너가 외국 국적의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돌아가거나, 항구에 도착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동정심에서 선원들의 지갑을 열게 하기도 했다는 뒷이야기이다. 끊임없이 선원들은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배에서 섬으로, 다시 다른 섬으로 탈주하고,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 이들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만들어갔을 것이다.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 나라 출신의 다양한 계층의 신분이다. 하지만 찰스 섬에 도착한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섞이는 가운데 주민끼리의 알력이 깊어만 간다는 사실은 당시 미국이 행하고 있던 많은 정책, 특히 노예제를 돌이켜보게 만든다. 미국 역시 독립은 했지만 계속적으로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넘어야 하는 장애물들은 불신과 인종간의 화합 등 한둘이 아닐 것이다. 찰스 섬의 일화는 오늘날의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 자행한 식민지 건설, 노예제 등 수많은 부정적인 일들을 은유한다.

3.1.2 은둔자 오벌루스의 타락

「스케치 9」의 후즈 섬에는 오벌루스 선착장(Oberlus's Landing)이 있다. 이것은 후즈 섬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제멋대로 구는 백인놈'(a wild white creature)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야만의 지역에 주변의 식인종보다 더 악마 같은 자질을 지닌 유럽인이 오벌루스이다(122). 배를 탈출한 오벌루스는 무인도에 도착한 다음 오두막을 손수 짓고 바다를 지나는 포경 선원과 직접 재배한 채소 등을 술과 은화로 물물교환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후즈 섬 또한 갈라파고스의 다른 섬들과 마찬가지로 화산섬이며, 검은 용암이 섬을 뒤덮고 있는 지형은 오벌루스 이야기의 배경으로 중요한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오벌루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죽은 이들을 태워주는 지옥의 뱃사공 카론

(Charon)으로 묘사되고, 오벌루스가 용암 틈에 간신히 심은 감자나 호박조차도 ‘퇴보했다’(degenerate)고 할 정도로, 지옥과도 같은 화산 지형에서 죽음과 타락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화자는 오벌루스의 추악한 생김새를 공을 들여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추악한 외모는 그 안에 든 오벌루스의 사악한 마음을 드러내고, 그의 행동 또한 이런 외모에 어긋나지 않는다. 심지어 채소를 가꿀 때조차도 그의 모습과 몸짓이 악의적으로 쓸모없이 사악하고 비밀스러워서 땅에 감자를 심기보다는 우물에 독을 넣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123-24)고 할 정도이다. 오벌루스는 “나의 어머니 사이코락스(Sycorax) 덕택으로 이 섬은 내 것”이라고 하는데, 사이코락스는 셰익스피어의 『태풍』(*The Tempest*)에 등장하는 섬의 야만적인 원주민 캘리반(Caliban)의 어머니로 알려진 마녀이다. 이미 오벌루스는 자신을 인간이기보다는 괴물에 가까운 존재로 정의해버렸다. 섬의 유일한 친구인 기어 다니는 거북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타락했고, 거북보다 더 강한 의지로 더 타락할 수 있는 능력만이 그의 자랑거리이다(124).

오벌루스가 거북보다 나은 유일한 장점은 거북 이상으로 더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유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가능성과 더불어 타락할 수 있는 지적 의지까지 소유하고 있다. 계속해서 알게 되겠지만, 이기적인 야망, 즉 자신의 야심을 채우기 위한 지배욕은 고귀한 마음씨가 지니는 특유의 단점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런 야심은 양심을 조금도 지니지 않는 생물들만이 소유한다.

The sole superiority of Oberlus over the tortoises was his possession of a larger capacity of degradation; and along with that, something like an intelligent will to it. Moreover, what is about to be revealed, perhaps will show, that selfish ambition, or the love of rule for its own sake, far from being the peculiar infirmity of noble minds is shared by beings which have no mind at all. (124)

어떤 때는 낯선 사람을 피해 용암 찌꺼기로 만든 움막의 모퉁이를 돌아서 몸을 숨기거나, 바스락거리는 곰처럼 덩불을 넘어서 산으로 도망쳐서 인간의 얼굴을 피하기도 한다. 오랜만에 가끔씩 바다에서 찾아오는 방문객

을 제외하면 오벌루스의 유일한 친구는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거북 밖에 없었다. 그는 술독에 빠져 인사불성이 되는 것 말고는 거북 수준을 넘어 서려는 욕심도 없어서 거북의 수준보다 더 타락한 것 같았다.

and he would long dodge advancing strangers round the clinkered corners of his hut; sometimes like a stealthy bear, he would slink through the withered thickets up the mountains, and refuse to see the human face. Except his occasional visitors from the sea, for a long period, the only companions of Oberlus were the crawling tortoises; and he seemed more than degraded to their level, having no desires for a time beyond theirs, unless it were for the stupor brought on by drunkenness. (124)

섬에 들어오기 전에는 알 수 없겠지만, 오벌루스는 섬사람이 되기 시작했을 때는 자연과 함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세월이 흐르자 내면에 감춰진 악마적 성격이 나오면서 인간으로서 멀리해야 하는 온갖 악행을 시험해보고, 또 유지해 나간다. 게다가 자신의 양심적 타락 수준은 배가 땅에 닿을 정도로 낮게 기어 다니는 거북처럼 더욱더 낮은 자세 같다고 하면서 풍자의 극치를 보여준다. 마음을 비웠다는 것은 한 인간 안에 선과 악 양면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는 자신을 비운 만큼 타락할 수 있는 악의 능력도 함께 지녔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Albrecht 475). 오랫동안 혼자 고독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 없이 주변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벌루스는 점차 다른 사람을 멀리 하면서 자신의 우월성에 사로잡힌다.

더군다나 오벌루스는 도둑질인지 또는 물물교환의 결과인지 몰라도 구식 장총(an old musket)까지 소지했다(125). 총은 권력을 의미한다. 오벌루스는 인간의 포악성과 잔혹성을 시험해보고 싶어 한다. 오벌루스는 배를 타고 온 흑인 하나를 잡아 노예로 만들려고 하지만 오히려 흑인의 공격을 받고 간신히 도망친다. 다음번에는 섬에 상륙한 선원들을 술에 취하게 만들어 포박한 다음 노예로 만드는데 성공한다. 그는 독재자가 되어 노예들을 거느리게 되는데, 노예들이 그의 발치에서 파충류처럼 변신한다. 오벌루스가 군주 아니콘다 뱀이라면 노예들은 평범한 가터 뱀이다(128).

오벌루스와 흑인이 산을 올라가는 도중, 오벌루스는 흑인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통보한다. 지금부터 흑인은 나를 떠받들고 일을 해야 하며, 나의 노예가 되어야하며, 흑인 네 놈의 처우는 향후 네 자신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다. . . . 이렇게 해서 노예들을 오벌루스의 두 발 아래 무릎을 꿇는 파충류—군주 아나콘다에게 시중드는 가터 뱀—로 전락시켰다.

On their way up the mountains, he exultingly informs the negro, that henceforth he is to work for him, and be his slave, and that his treatment would entirely depend on his future conduct. . . . and in all respects converts them into reptiles at his feet—plebeian garter-snakes to this Lord Anaconda. (126-128)

그런 다음 오벌루스는 자신의 영역인 섬 근처를 지나가는 배에 도전할 생각을 한다. 선원을 죽이고 배를 탈취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마침 두 척의 배가 섬으로 오고, 오벌루스는 선원들을 피어내고 이들이 타고 온 보트를 부셔버린다. 선장들은 나무통에 편지를 넣어서 해안가에 매달아 놓고 오벌루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만, 오벌루스는 이 편지마저 가로채어 자신이 쓴 편지를 집어넣는다. 편지에 오벌루스는 자신을 누명을 쓰고 엔칸타다스로 추방된 애국자로 묘사하며, 자신은 오두막을 남기고 피지(Fiji)로 향한다는 말을 써넣는다. 물론 오벌루스는 피지로 간 것이 아니라 페루로 갔고, 자신의 정체는 탄로 나서 감옥에 갇히게 된다. 오벌루스는 결국에 모든 것을 잃고서 섬을 탈출했다가 다시 후즈 섬으로 되돌아가기로 하던 중, 시민의 신고로 투옥된다(131).

오벌루스는 『엔칸타다스』를 통틀어 찾아보기 어려운 악인으로 묘사된다. 모지즈(Moses)는 그가 신과 악마 모두를 의미한다고 단언하지만(342), 세상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를 너무나 생생하게 드러내는 그의 특성의 하나가 바로 노예제 시행이다(Newbery 63). 오벌루스를 “악의 화신이자 태평양의 이아고(Iago)”라고 할 만큼(Albrecht 475), 자신이 잡아들인 노예들 위에 폭군으로 군림한다. 오벌루스의 이야기는 개인의 타락에서 시작하여 사회-정치적인 문제까지 확장되면서, 당시 식민지 개발과 인종차별을 일삼는 유럽 국가들과 미국을

겨냥한다.

이 절에서 다루어진 찰스 섬의 견왕과 후즈 섬의 은둔자 오벌루스는 악을 공유하지만 서로 대립되는 면이 있다. 견왕은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된 정치적 실험이 견잡을 수 없이 타락으로 치닫는 사회를 보여주는가 하면, 오벌루스는 개인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엔칸타다스를 찾아온 이들은 섬을 자신의 새로운 생활터전으로 삼지만 점차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욕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까지 파멸시키는 공통점을 지닌다. 지옥과도 같은 황량한 엔칸타다스의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다.

찰스 섬의 견왕과 후즈 섬의 은둔자 오벌루스의 에피소드는 멜빌이 사회문제를 넘어서 정치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예시한다. 뉴베리(Newbery)는 멜빌의 정치적 신념은 다른 주제에 비해 아직 상대적으로 비평가들이 소홀히 했던 주제이지만, “그의 창조적 의식의 중대한 확장을 반영한다”(63)고 하였다. 두 에피소드가 사회와 개인의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사회가 구성원을 받아들이는가 의 문제이다. 견왕은 섬에 이주자들을 모집해서 데려가거나 섬을 방문하는 선원들을 유인하는가 하면, 오벌루스는 배를 부셔버리고 선원들을 강제로 노예로 부린다. 결국, 두 개의 스케치는 신생 국가 미국의 성립과 미국의 가장 큰 문제로 부상한 노예제를 소재로 하여 인간 사회와 개인의 타락을 다루었다.

3.2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이는 인간

엔칸타다스에 이주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와 정착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었다. 멜빌이 찰스 섬의 견왕과 은둔자 오벌루스를 통하여 인간의 타락을 정치적 문제와 결부시켜 다루었다면, 자의든 타의든 사회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을 다루기도 한다. 멜빌은 여행기로서의 『엔칸타다스』의 성격에 맞게 이국적으로 보이거나 특이한 사람들에 관한 에피소드를 배치하는데, 가장 흥미로운 부류의 사람들 중의 하나가 해적이다. 신대륙

의 보물을 본국으로 운반해가는 스페인의 배를 약탈하는 해적들의 이야기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멜빌의 해적 이야기는 이런 대중적인 관심을 벗어난 듯 보인다. 멜빌은 해적들의 본성이란 것이 원래부터 해적이 아니었고, 상황에 따라 해적이 되었음을 말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배링튼 섬에 상륙하여 휴식을 취하던 해적들을 그려보며 이들이 얼마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변모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본다. 독자의 관심을 끌 만한 또 다른 엔칸타다스의 방문객은 여성이다. 백인 여성이 아닌 원주민 혼혈 여성으로 섬에 홀로 남겨졌다가 선원들에게 구조되는 후닐라는 그녀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불쌍한 여성으로, 또는 선원들을 속이는 사악한 여성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려졌다. 멜빌은 이들을 통하여 인간을 보는 관점은 고정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한다. 시각의 차이에 따라 사물이 다르게 보이듯이 사람을 볼 때도, 보는 이들의 관점에 따라 상이해진다.

3.2.1 해적

배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배나 해안 지방을 습격하여 재물을 빼앗는 사람이 해적이다. 혹은 공해상에서 사적 목적을 위하여 다른 배에 대해서 또는 배 안에서 폭행이나 약탈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일컫기도 한다. 다윈과 멜빌이 갈라파고스를 방문했을 당시, 이곳까지의 항로는, 파나마 운하가 건설되기 전이었음을 감안하면 남아메리카 혼 곳을 돌아가거나 마젤란 해협을 통과해야만 했다. 한 쪽은 식민지 확장을 위한 세계지도용 지리 측량이 주목적이었고, 나머지 쪽은 고래 기름을 구하기 위한 항해였다. 다윈이 탄 측량선의 일행이나 멜빌이 탄 포경선의 선원들이 물과 식량을 얻기 위해 갈라파고스에 들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선원들 못지않게 스페인 탐험가와 동행한 해적 카울리(Cowley)나, 영국과 미국의 군함에 탄 해군들도 갈라파고스를 찾았다. 멜빌은 엔칸타다스를 직접 눈으로 보았던 권위 있는 목격자를 세 사람을 들고 있는데, 해적인 카울리, 포경해역을 탐험한 콜넷(Colnet), 에섹스 호의 선장 포터이다(95). 갈라파고스와 관련된 중요 인물들의 직업이 해적, 탐험가, 해군 함정의 선장이라는 것은 이런 직업군의 사람들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200년 전 해적 집단의 소굴이었다. 제도가 해적들에게는 안전한 항구, 안락한 정자였을 뿐 아니라 은신처 노릇까지 했다.

배링튼 섬은 약 2세기 전에 서인도 해적들의 유명한 안식처였다. 그들이 쿠바 바다에서 쫓기게 되자, 태평양 연안 스페인 식민지를 약탈했다. 그리고 마닐라와 아카폴코 사이를 오늘날의 우편배달만큼 정확하고 규칙적으로 왕복하는 왕실 소속 보물선들을 공격했다. 해적질을 마치고는 이 섬에 와서 기도를 올리고, 여유작작해 진다. 큰 통에서는 비스킷을, 작은 통에서는 금화를 꺼내어 헤아리고, 기다란 톨레도산 검은 야드 차로 만들어 아시아에서 제조된 비단을 잰다.

Near two centuries ago Barrington Isle was the resort of that famous wing of the West Indian Buccaneers, which, upon their repulse from the Cuban waters, crossing the Isthmus of Darien, ravaged the Pacific side of the Spanish colonies, and, with the regularity and timing of a modern mail, waylaid the royal treasure-ships plying between Manilla and Acapulco. After the toils of piratic war, here they came to say their prayers, enjoy their free-and-easies, count their crackers from the cask, their doubloons from the keg, and measure their silks of Asia with long Toledos for their yard-sticks. (96)

하지만 본국으로 남미대륙의 보물을 실어 나르던 배와 이를 약탈하려던 배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어느 때는 주고 어느 때는 빼앗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 바다는 질서가 확립된 육지의 인간사회와는 다른 일탈의 공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일탈의 공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바로 해적이었고, 이들은 식민지 탐험가나 개척자들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바다로 나섰다. 해적 다음으로 가장 잦은 방문자들이 포경선원들이었다(Albrecht 465). 「스케치 5」에 등장하는 미국 국적의 에섹스 호의 수병들 역시 해적처럼 마법의 섬들 사이를 오가며 거북을 잡고 섬들을 답사했고 영국의 포경선을 추격하기도 했다. 추격선에 승선한 사람들 또한 해적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에섹스 호로서는 사실상 자연스러운 행위이듯이, 바다의 무법자들일 망정 그들은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있었다. 양쪽 모두가, 낡았고 더 이상 쓸모 없는 정치적인 명령에 저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시기를 위해 싸웠다.

As buccaneers they are pirates with a *cause*, similar in nature to that of the *Essex*. Both fought against old and outmoded political orders, both championing a new age. (Newbery 60)

배링튼 섬은 여러 면에서 특이했다(96). 미국 해군의 군사력이 왕성해지기 전에는 서인도 해적들의 해상활동이 왕성했던 적도 있었다. 해적들이 약탈을 한 후에는 이 섬으로 와서 기도하고 술잔치를 벌였다. 안전하게 후퇴하고, 들키지도 않는 은신처이기도 했다. 당시 해적 생활에 대한 문헌이나 자료가 없는 가운데 화자는 섬에서 발견한 몇 가지 흔적이나 생활필수품을 통하여 당시 해적들의 생활을 읽어낸다. 시간은 현재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환상적인 상상력을 동원하고 있다.

내가 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브라만교도와 평화 공동체 사람들이 사용했음직한 의자들이다. 돌과 잔디로 꾸며진 균형 잡힌 쉼터의 멋진 유적이 남아있다. 돌과 잔디는 인공적이고 오래 되었으며, 의심할 바 없이 해적들의 작품이다. 또 하나는 등받이에 팔걸이가 있는 기다란 소파인데, 마치 시인 그레이가 자신의 손에 크레비용의 소설책을 들고 풀썩 앉았을 소파 같다.

[W]hat do you think I saw? Seats which might have served Brahmans and presidents of peace societies. Fine old ruins of what had once been symmetric lounges of stone and turf, they bore every mark both by of artificialness and age, and were, undoubtedly, made by the Buccaneers. One had been a long sofa, with back and arms, just such a sofa as the poet Gray might have loved to throw himself upon, his Crébillon in hand. (97)

시인이 시집을 손에 들고 앉았을 만한 의자였지만, 화자는 해적들이 앉았던 의자라고 증언한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해적들이 극악무도한 괴물 같은 존재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기념물이 된 것이다. 배링튼 섬에 상륙한 해적들은 자신들이 새로 태어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멜빌은 적고 있다.

한 손에는 녹이 슨 검의 파편, 다른 손에는 포도주 병의 파편을 들고서, 앞서 말한 낡아빠져 쓸모없는 풀빛 의자에 앉아 이 해적들에 대하여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다. 그들이 하루는 강도와 살인을, 다음 날은 흥청거리며 놀고, 사흘째는 휴식을 취하면서 사색적인 철학자들, 전원시인들, 그리고 의자 만드는 사람들로 변신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결국,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우유부단한 인간의 마음을 생각해본다면 말이다.

With a rusty-fragment in one hand, and a bit of a wine-jar in another, I sat me down on the ruinous green sofa I have spoken of, and bethought me long and deeply of these same Buccaneers. Could it be possible, that they robbed and murdered one day, reveled the next, and rested themselves by turning meditative philosophers, rural poets, and seat-builders on the third? Not very improbable, after all. For consider the vacillations of a man. (98-99)

인간은 언제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수만은 없다. 때에 따라서 평소와 정반대의 언행을 하기도 한다. 배링튼 섬에 상륙한 해적들은 철학자와 시인이 되어 인생을 명상하기도 하고, 의자를 만드는 목수가 되기도 하였다. 포악했던 해적들이지만 섬이 가져다주는 은신처의 편안함에 잠시 해적질을 잊고 새로운 일상을 시작해볼 여유를 즐긴 것이다. 포경선의 선원인 화자 역시 한 손에는 녹슨 칼을, 또 다른 손에는 포도주 병의 파편을 들고 과거로 돌아가 해적이 되는 경험을 맛본다. 독자들 역시 멜빌이 이끄는 대로 마법의 섬에서 현실을 잠시 내려놓고 해적이 되는 환상을 누리게 된다. 인간 누구나가 갖고 있는 정신적 다면성을 통하여 현실 속에 환상이 있고, 환상 속에 현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스케치 6」에서, 화자는 배링튼 섬에 상륙한 해적들이 회춘하는 과정을 겪었다고 말하는데, 이 과정은 『엔칸타다스』를 전통적인 낭만주의 문학과 연결시킨다. 잎이 무성하거나 적어도 자연 법칙에 따라 과일이 열리는 전통적인 낭만주의 문학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불모의 제도’조차도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 사색을 하는 사람으로 변모하는 곳이 될 수 있다.

In Sketch Sixth, the narrator says that pirates who landed on Barrington Isle underwent a process of rejuvenation, a process which links *The Encantadas* with traditional Romantic literature. Even the "archipelago of aridities," a distinct variation from the usual lush or at least physically fruitful world of Romantic literature, can be the setting for the violent man's transformation into the contemplative man. (Jackson 137)

17-18세기 서인도 제도의 스페인령 연안을 휩쓸었던 해적들은 결국 남태평양으로 쫓기는 신세로 전락한다. 한때는 서인도 해역을 호령하던 선원들이 바다의 도적 신세가 되고, 마침내 해적으로 몰린 나머지 먼 바다로 쫓기게 된다. 우리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돌고 도는 수레바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을 쫓는 수병이나 선원들이 당시에는 해적을 소탕하는 입장이지만 과거에 해적이 아니었다고 장담할 수 없고, 미래 언젠가는 제 3의 해적이 될지 모른다. 국경 수비를 하는 동시에 해적질을 하는 셈이다. 태어나면서부터 해적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한때 바다를 누비면서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의 박물관에는 세계 각지에서 가져온 온갖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보물을 잃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장물 창고요, 도적질의 증거라고 할 만하다. 이런 보물을 가져온 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탐험가이자 해군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이런 칭호는 너무나 일방적인 표현이겠지만. 지난날에는 해적으로 불리기도 한 사람들이다. 멜빌이 『엔칸타다스』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우리 인간은 고정적인 시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배링튼 섬에서 휴식을 취한 이들이 해적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나 철학자도 될 수 있었던 이들의 가능성이다.

3.2.2 후닐라

“노포크 섬과 출라 과부”(Norfolk Isle and the Chola Widow)라는 부제가 달린 여덟 번째 스케치는 “노포크 섬이 대부분의 항해자들에게는 무의미한 곳이지만, 이 외로운 섬이 동정심을 통해서 자신에게는 인간성의 가장 기이한 시련으로 인해 기록해진 섬”(106)이 되었다는 화자의 선언으로 시작한다. 화자는 엔칸타다스를 방문한 지 사흘 째 되던 날에 처음 섬에 발을 디디게 되었고, 무인도라고 여겼던 곳에서 한 불쌍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전한다. 이전의 에피소드와는 달리 처음으로 등장한 여성인물에게 상당한 관심을 갖고 화자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독자에게 보고하듯이 전한다.

여인에 따르면, 자신의 일행을 무인도에 내려준 프랑스인 선장은 사 개월 후에 데리러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섬을 떠났고,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한 배는 후닐라 일행을 태우러 오지 않았다고 한다(108). 그녀의 일행이 노포크 섬을 찾은 목적은 거북에서 나오는 순도 높은 기름과 별미인 거북 고기를 얻는 것(108)이었지만, 남편과 동생은 물에 빠져죽었고, 후닐라만 혼자 남게 되었다. 화자의 배는 후닐라를 구조하여 육지로 데려간다는 이야기인데, 이 에피소드는 『엔칸타다스』에서 가장 중첩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화자가 탄 배의 선원들이 후닐라를 발견하는 대목을 보자.

저 멀리 가리키는 쪽에는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다. 섬 안쪽 바위 위에서 펄럭이는 하얀 물체였고, 해상에서 800미터쯤 된다. “새입니다; 날개가 흰 새입니다; 아마도 음—아니고; 바로—손수건입니다!” . . . 기다란 망원경으로 살펴본 결과 . . . 확실하게 바위 위에서 사람의 모습을 한 것이 우리를 향하여 손수건 같은 것을 열심히 흔드는 것이 보였다.

Glancing across the water in the direction pointed out, I saw some white thing hanging from an inland rock, perhaps half a mile from the sea. ‘It is a bird; a white-winged bird; perhaps a—no; it is—it is a handkerchief!’ . . . the long cabin spy-glass was thrust . . . whereupon

a human figure was plainly seen upon the inland rock, eagerly waving towards us what seemed to be the handkerchief. (107)

다른 선원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유독 페루산 브랜드인 피스코(pisco) 주를 한잔 마신 선원의 눈에만 보이기 시작했다. 이어서 망원경으로 자세히 들여다 본 후에,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하여 미확인 물체 가까이 다가간다. 거리에 따라 대상이 달리 보이는 것이다. 보트를 내려, 태우고 온 사람은 '검은' 피부를 한 출라⁹⁾ 과부이다.

록 로돈도는 거리에 따라 처음에는 커다란 듯 세 개를 올린 호화 유람선에서 차차 작은 바위섬으로 그 모습이 바뀌었었다. 반면에 후닐라는 멀리서부터 카메라가 줌인(zoom in)하듯이 물에서 움직이는 물체, 흰색의 물체, 손수건, 손수건을 든 사람, 그리고 검은 피부의 여인으로 차츰 그 모습이 뚜렷하게 비춰진다. 화려한 배에서 황량한 바위섬이 밝혀지는 록 로돈도와는 달리, 후닐라는 가까이 갈수록 바위 같은 무생물에서 생물을 거쳐 인간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멜빌은 후닐라가 록 로돈도처럼 거리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는 속성을 갖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듯한데, 이는 바꾸어 말하자면 후닐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가족을 잃은 불쌍한 과부로 그려지는 후닐라의 이야기를 전하는 가운데 화자는 끊임없이 후닐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끼워 넣는다. 후닐라의 말을 그대로 믿을 것인지의 여부는 철학자, 시인이나 목수의 자질을 지닌 해적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독자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멜빌은 인간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독자에게 제공하고 독자들이 이런 해석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때문이다.

후닐라의 에피소드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중첩되어 있다. 하나는 혼혈 여인 후닐라가 혼자서 노포크 섬에서 생활한 자전적 이야기이다. 돈을 벌기 위하여 섬에 들어온 후닐라는 남편과 동생이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 열심히 거북을 잡아서 기름을 짰다. 이후 혼자가 된 후닐라는 섬에 홀로 남아 있었다고 답한다. 동생의 시체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행을 데리러 온다고 약속한 프랑

9) 출라는 스페인계와 아메리카 원주민 피가 섞인 라틴 아메리카 여자를 뜻함. 한편 출로(cholo)는 출라를 포함하여 남성을 일컫기도 한다.

스인 포경선 선장을 기다리느라 후닐라는 섬에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112). 하지만 홀로 남게 된 섬에서는 사적이거나 공적인 모든 사회적 관계가 잇따라 붕괴될 수밖에 없는 삶이 이어진다. 멜빌의 화자는 특이하게 이런 관계의 붕괴를 “익숙하고 꾸준하게 반복되는, 인간의 것이거나 인간과의 교류로 인해 인간화된 소리”(112)가 주위에서 사라지고 데리고 있던 개의 울음소리와 바다의 단조로운 소리만이 후닐라의 삶을 채운다고 묘사한다(112). 자연이 문명을 대체하게 된 것을 문명에서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던 소리가 사라졌다고 표현함으로써, 후닐라의 삶에 닥쳐온 문명과의 단절을 표현해낸다.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 1719)의 크루소는 바다에서 난파당한 후, 홀로 무인도에 도착하여 착실한 무인도 생활을 한다. 우선 배에서 의류, 식량, 무기를 운반하여 오두막집을 짓고 불을 사용한다. 가축을 키우고 곡식을 재배하는 한편 배를 만들어 탈출을 꾀하기도 한다. 또 무인도에 상륙한 식인종의 포로를 구출하여 충직한 하인으로 삼고, 28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다는 이야기의 이면에는 고립된 삶을 영국에서와 다른 없는 규칙적인 일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하지만 무인도에서 혼자서 인간문명을 유지하려는 크루소의 노력은 식민지 건설이라는 대영제국의 당면과제를 반영한 허구의 이야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후닐라의 무인도 생활은 로빈슨 크루소처럼 체계적이거나 규칙적이지 않다. 후닐라가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 그 예이다. 그녀는 섬에 머무르면서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하여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7일이 단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일을 한 단위로 한다. 또는 그녀가 먹는 바닷새 알의 수, 또는 그녀가 식용으로 잡는 물고기나 거북의 수, 또는 맑거나 흐린 날의 수로 하루하루를 헤아리면서 구조될 날을 기다린다(114). 고립된 생활 속에서 정확히 180일 후에는 날짜를 새기는 것을 중단한다고 하는데(114), 이 180일이라는 기간이 과연 바깥 인간 사회에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정해진 것인지는 의문이다.

후닐라는 우리가 객관적,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의 단위 자체를 허물어뜨린다. 그녀는 “인간 사회의 경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산술의 쓸모없음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자신만의 날짜 세기조차도 중단해 버린다”(Tanyol 262). 어쨌거나 화자는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인 시간의 기준 대신에 임의적인 방식으

로 날짜 세기를 하는 후닐라를 보여주고, 마지막 눈금이 가장 희미하고 첫 번째 눈금이 가장 깊게 새겨져 있었다는 말을 한다(114). 그리고는 왜 눈금을 더 새기지 않았느냐는 선장의 질문에 “선장님, 제게 더 묻지 마세요.”(115)라면서 질문을 차단해버리는 후닐라의 답을 배치한다. 일반적으로는 처음 눈금이 시일이 지났으니 희미하고, 나중에 새긴 눈금이 더욱 뚜렷한 것이 맞지만, 후닐라의 눈금은 다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후닐라를 보여주고, 화자는 이런 고통 속에서 크루소처럼 차근차근하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아볼 경황이 없었고, 달력이나 시계, 수탉처럼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없었다는 말을 덧붙인다. 하지만 후닐라가 만든, 다른 곳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의심스러운 ‘달력’을 보여주는 것은 그녀의 이야기의 논리를 독자가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또한 선장과 후닐라와의 대화를 보면(108), 후닐라는 지나가는 포경선을 수 차례이상 보았을 것으로 추정될 수도 있다. 당연히 화자의 배가 그녀를 구조했듯이, 후닐라는 이미 오래 전에 구조되어 이 섬을 떠났어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화자가 후닐라의 말을 가로막는 듯이 보인다. 물론 후닐라가 대답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지만 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한다.

하지만 아니다. 난 조롱하는 영혼들이 인용하면서 이것을 그들에게 확정적인 증거로 제시할까봐 이 이야기를 매듭짓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반은 여기서 말하지 않을 참이다. 이 섬에서 후닐라에게 닥친 두 가지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은 그녀와 그녀의 신 사이에 두도록 하자. 법에서처럼, 자연에서는 어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명예훼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But no. I will not file this thing complete for scoffing souls to quote, and call it firm proof upon their side. The half shall here remain untold. Those two unnamed events which befell Hunilla on this isle, let them abide between her and her God. In nature, as in law, it may be libelous to speak some truths. (115)

포경선이 후닐라를, 후닐라가 차마 더 이상 말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그녀에

게 일어났을 수도 있다. 하우윙튼(Howington)은 후닐라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멜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한다.

『엔칸타다스』에서 가장 뛰어나고 복잡한 이미지 중의 하나가 「스케치 8」의 후닐라 이야기에서 발견된다. 멜빌이 오랫동안의 고통과 고뇌를 거치는 동안 이 배신당하고 잊혀진 여자에 강하게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 희생과 고통의 이미지가 다분히 만연하고 있는 이 스케치에서, 멜빌은 인생의 어떤 측면에 있어서 고통과 슬픔을 너무나 깊게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 . . 가장 비극적인 고통의 요소는, 어쩌면 고통의 변덕스러움이다.

Some of the finest and most complex imagery in *The Encantadas* is to be found in the story of Hunilla in Sketch Eight, imagery which indicates how strongly Melville sympathized with this betrayed and forgotten women throughout her long period of suffering and torture. . . . The images of victimization and suffering are so pervasive in these sketches that they indicate how deeply Melville saw suffering and grief as aspects of life. . . . Perhaps the most tragic element of suffering is its capriciousness. (Howington 74)

놀랄 만한 고통과 인내를 겪은 후닐라에 감탄의 눈길을 보내지만, 화자는 이런 고통을 초래하는 운명의 변덕스러운 힘을 후닐라를 통해 확인한다. 후닐라는 마치 자연 속에 맹수의 먹이로 놓여진 한 마리 도마뱀에 비유된다. 그 맹수는 다름 아닌 운명이지만, 달리 해석할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있다.

후닐라를 생각해 보면—

비단결을 한 맹수가 황금색 도마뱀을 오랫동안 장난삼아 희롱하다가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광경은 소름끼치는 광경이다. 더욱 끔찍한 것은, 교활한 운명이 종종 인간의 영혼을 장난삼아 희롱할 때가 있으며,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마력에 홀린 인간의 영혼은 건전한 절망을 쫓아버리고 광기에 지나지 않는 희망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 자신도 모르게 이 발소

리 없이 다니는 운명을 한층 더 부풀리면서 이것을 읽는 사람의 심정을 놀리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독자로서 느끼는 것이 없으면 읽은 것이 헛일이 되기 때문이다.

When Hunilla—

Dire sight it is to see some silken beast long dally with a golden lizard ere she devour. More terrible, to see how feline Fate will sometimes dally with a human soul, and by a nameless magic make it repulse a sane despair with a hope which is but mad. Unwittingly I imp this cat-like thing, sporting with the heart of him who reads; for if he feel not he reads in vain. (113)

아무튼 후닐라의 말과는 상반되는 것을 생각해 보자. 외딴 무인도에서 후닐라와 함께 시간을 보낸 남자들은 다름 아닌 맹수로 볼 수 있다. 후닐라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섬으로 갔으며, 맹수 같은 남자들은 후닐라를 동시에 또는 따로따로 만났을 수도 있다. 또 나중에 후닐라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을 남긴 선장은 사실 약속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후닐라 측의 사정으로 승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마침내 복수의 칼을 든 후닐라는 모두 살해하고 혼자 남는다. 그리고, 화자가 탄 배의 선원까지도 충분히 야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화자는 오직 글을 써 가기만 할 뿐, 상상의 여지는 독자에게 양보한다. 화자는 이미 다른 시·공간 속에서 또 다른 상상의 여백을 만들고 있을 것이다. 교활한 운명의 장난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후닐라의 간사한 꾀에 넘어간 선원의 이야기인지 그 뒤편은 독자의 것이다.

어쨌든 후닐라로 대표되는 인간의 가혹한 운명에 대해서 화자는 마음껏 슬퍼하고 공감해주기를 바라고, 배로 데려온 후닐라는 선원들로부터 “어떤 제독의 아내라도 받지 못했을 존경”(117)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후닐라 남편의 무덤에는 십자가가 자리 잡고, 물에 상륙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녀가 탄 나귀의 어깨에서 십자가의 문장을 바라보는 것으로 마무리되면서 후닐라의 고통은 보편적인 인간의 고통으로 끌어올려지고 종교적인 색채까지 띠게 된다. 하지만 화자는 「스케치 8」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후닐라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증거를 하나씩 남겨둔다.

우리가 출발 준비를 모두 갖추기 직전에, 그녀가 우리 사이에 다시 나타났다. 나는 그녀의 두 눈을 들여다보았지만 눈물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태도에는 뭔가 이상하게 도도한 구석이 있었지만, 그것은 비통해 하는 분위기였다. 스페인과 인디언의 혼혈에서 태어난 이 사람의 슬픔은 한탄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A few moments ere all was ready for our going, she reappeared among us. I looked into her eyes, but saw no tear. There was something which seemed strangely haughty in her air, and yet it was the air of woe. A Spanish and an Indian grief, which would not visibly lament. (119)

이 구절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는 후닐라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와 같다. 너무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픔을 밖으로 표현할 수도 없는 후닐라인가? 후닐라의 에피소드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화자가 허구의 인물을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는 독자더러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후닐라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남편, 동생, 프랑스인 선장—이 실제의 인물인가에 대한 것으로, 후닐라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된다. 그것은 「스케치 8」에 붙인 에드먼드 스펜서(Edmund Spenser)의 글에서 가져온 제명(epigraph)을 분석해보면 잘 드러난다. 『엔칸타다스』의 다양한 열 개의 스케치에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멜빌은 각 스케치의 시작 부분에 주로 스펜서의 『선녀여왕』(*The Faerie Queene*)의 글귀를 인용하여 텍스트 앞에 놓았다. 비처(Beecher)는 이 제명이 텍스트의 감동을 강화시키거나, 비꼬는 느낌을 주어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도록 만든다고 한다(90). 멜빌은 「스케치 8」의 내용과 부합되게 슬픔에 빠진 여인이 도움을 청하는 내용의 첫 번째 제사를 『선녀여왕』 제 2권에서 가져왔다.¹⁰⁾

마침내 그들은 섬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바닷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10) 정확하게는 제 2권, 칸토 12, 27연의 5~9행이다.

큰 슬픔과 고통으로 어떤 커다란 불행을
슬퍼하고 있는 듯이 보였고,
그들에게 도움을 큰 소리로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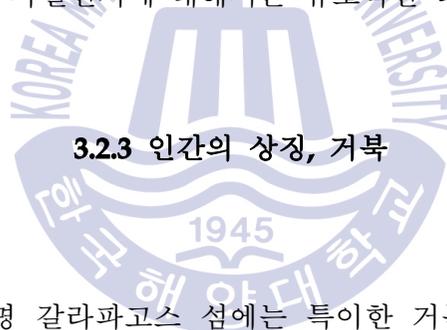
At last they in an Island did espy
A seemly woman, sitting by the shore,
That with great sorrow and sad agony
Seemed some great misfortune to deplore,
And loud to them for succour called evermore. (106)

그러나 모지즈(Moses)는 이 인용이 겉보기와는 달리 기사 가이언(Guyon)을 유혹하는 아크라지아(Acrasia)의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한다고 한다(340). 아크라지아는 불행을 가장하여 가이언을 유혹하고 있었다는 원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후닐라의 에피소드는 이제까지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지시하게 된다. 이어 슬픔의 원인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임을 밝히는 두 번째 제사를 채터튼(Chatterton)의 글에서 가져온 다음,¹¹⁾ 마지막 세 번째 제사에서 18세기 영국시인 윌리엄 콜린스(William Collins)가 셰익스피어의 『심벨린』(*Cymbeline*)에 붙인 만가를 인용하였다. 시에는 “죽은 것으로 생각되는 피델에 대해 기더러스와 아비저러스가 노래함”(Sung by Guiderus and Arvigarus over Fidele Supposed to Be Dead)라는 설명이 있지만, 실제 극에서 노래의 대상인 피델, 즉 주인공인 이모젠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세 개의 제사는 모두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노래하지만, 실제로는 애도의 대상이 죽지 않았거나, 애도 자체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멜빌은 이런 제사의 배치를 통해 후닐라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지시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무조건 믿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스케치 7」의 끝부분에서 찰스 섬에서 도망친 자들이 이웃 섬으로 탈출해서 선장인 척 거짓말을 하고, 스페인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육지에 상륙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돈을 각출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선장이 신출내기 선원으로 보이는 화자에게 들려줄 때, 이미 선장은 다음 번 스케치에서 후닐라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후닐

11) 토머스 채터튼(Thomas Chatterton), *Mynstrelles Song from Aella*.

라의 경우도 화자가 탄 배가 그녀를 구조하고, 페루에 도착할 때는 그녀를 위해 선원들이 돈을 건어주기 때문에, 후닐라는 찰스 섬의 거짓말 하는 선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후닐라는 남편과 동생과 함께 섬의 귀중한 자원인 거북을 사냥하러 왔었지만, 결국은 자신이 운명의 먹잇감이 되어버렸다. 결국은 구조되어 보트를 타고 후닐라 자신은 선원들과 함께 배로 가지만, 키우던 개들을 단 두 마리를 제외하고는 섬에 두고 떠난다. 개들은 후닐라 일행이 프랑스인 선장에 의해 섬에 남겨졌던 에피소드를 떠올리게 한다. 특히 마지막에서 육지에 도착해서 예수의 이미지처럼 나귀를 타고 고향을 향해 떠나는 후닐라를 거짓 이야기를 지어낸 사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야기에서 그려진 대로 종교적 상징성을 띠는 고통 받는 인간의 전형으로 볼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많은 멜빌의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대립되는 것이 합쳐진 모호함이 후닐라 이야기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Moses 341). 멜빌은 후닐라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고독의 시간에 대해 말하지만,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



3.2.3 인간의 상징, 거북

마법에 홀린 섬, 일명 갈라파고스 섬에는 특이한 거북이 살고 있다. 멜빌은 섬의 대표적 생물인 거북에 비상한 관심을 둔다. 먼저 「스케치 1」에서 섬의 유래를 거북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인간이 변신해서 거북이 되었다는 미신을 전함으로써, 『엔칸타다스』의 주제인 자연과 인간을 연결시킨다.

이 특이한 야생의 세계에 살고 있는 파충류—이들로 인해 제도에는 두 번째 스페인어 이름인 갈리파고스가 붙여졌다—에 관해서, 즉 여기서 발견되는 거북에 관해서, 대부분의 선원들은 오랫동안 끔찍하다기보다는 그로 테스트한 미신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사악한 고급 선원 전부가, 특히 해군 장성들과 선장들이 죽어서(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죽기 전에) 거북으로

변한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다. 거북은 그때부터 이렇게 뜨겁고 무미건조한 곳에 사는 유일하고 고독한 아스팔트의 제왕이 된 것이다.

For concerning the peculiar reptile inhabitant of these wilds— whose presence gives the group its second Spanish name, Gallipagos— concerning the tortoises found here, most mariners have long cherished a superstition, not more frightful than grotesque. They earnestly believe that all wicked sea-officers, more especially commodores and captains, are at death (and, in some cases, before death) transformed into tortoises; thenceforth dwelling upon these hot aridities, sole solitary lords of Asphaltum. (73)

화자는 엘버말 섬에 상륙하여 대홍수 이전의 시대로부터 온 것 같은 (antediluvian-looking) 거북 세 마리와 마주친다(76). 화자는 세상의 근원을 향하여 이끌려 들어간다.

이들 신비의 생명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적한 곳에서 갑자기 야음을 타서 우리네 인간이 있는 갑판 쪽으로 다가왔는데, 형언하기 어려운 정도로 나에게 감명을 주었다. 그들은 세상의 토대 밑에서부터 방금 기어나온 듯했다. 그렇다, 힌두교도는 거북을 기반으로 하여 그 위에 우주를 올려놓는다고 하는데, 이들이 바로 그 거북들 같았다. 나는 랜턴을 들고 찬찬히 살펴보았다. 존경스럽고 고색창연한 외모로군! 초록색 빛깔을 가진 털 같은 것이 부서진 등판 껍질 갈라진 틈을 치유하고, 껍질이 벗겨진 피부를 감싸고 있었다.

These mystic creatures, suddenly translated by night from unutterable solitudes to our peopled deck, affected me in a manner not easy to unfold. They seemed newly crawled forth from beneath the foundations of the world. Yea, they seemed the identical tortoises whereon the Hindoo plants this total sphere. With a lantern I inspected them more closely. Such worshipful venerableness of aspect! Such furry greenness mantling the rude peelings and healing the fissures of their shattered shells. (76-77)

힌두교도들은 거북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즉 우주 창조는 이 절대적 존재의 머리에서부터 탄생했다고 보았다. 지구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거북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거북은 세상의 시작과 관련된다. 단순히 갈라파고스 제도를 무리지어 기어 다니는 동물의 차원을 넘어서기에 화자는 거북의 등에 새겨진 오랜 상처를 지질학자의 눈으로, 또는 암호를 해독하는 고고학자의 눈으로 살펴본다.

나는, 그 다음에 이 세 마리의 고지식한 괴물들이 수세기에 걸쳐, 대장장이들처럼 음침하게, 음지를 지나가는 모습이며, 너무나 느리고 무겁게 짙은 몸을 끌고 가는 탓에 그들의 발밑에는 온갖 독버섯들과 곰팡이가 자라날 뿐만 아니라, 등판에는 거무스름한 이끼가 피어나는 모습도 상상으로 그려보았다. 이렇게 내가 그들과 함께 화산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미로에서 길을 잃었다. 끊임없이 흩어지고 말라비틀어진 덩불의 나뭇가지를 털어내는 동안에 어느새 꿈결 속에서 나는 앞장을 선 거북등 위에 가부좌를 튼 브라만 교도처럼, 세 개의 이마를 일렬로 늘어놓고 우주의 거대한 사제복이라고도 할 창공을 떠받치는 삼각대가 되어 버렸다.

I then pictured these three straightforward monsters, century after century, writhing through the shades, grim as blacksmith; crawling so slowly and ponderously, that not only did toad-stools and all fungus things grow beneath their feet, but a sooty moss sprouted upon their backs. With them I lost myself in volcanic mazes; brushed away endless boughs of rotting thickets; till finally in a dream I found myself sitting crosslegged upon the foremost, a Brahmin similarly mounted upon either side, forming a tripod of foreheads which upheld the universal cope. (78)

「스케치 1」에서 화자는 엔칸타다스의 특별한 저주는 이곳에 결코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 점이며, 또한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임을 그 특징으로 들었다. 엔칸타다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동물은 거북이다. 거북은 슬픔과 형벌의 절망의 이미지로 그려지며, ‘사악한 선원, 특히 해군 장성들과 선장들’(73)의 영혼이 들

어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므로 거북은 갈라파고스를 대표하는 동물이면서 동시에 갈라파고스를 찾아온 인간의 상징이 된다. 하지만 갈라파고스를 방문한 인간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희망과는 상관이 없이 타락과 부패, 고통에 짓눌리며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다. "힘에 겨운 듯이 기는 거북의 등 위에는 어떤 징표(Memento****)가 적힌 것 같다"(74)고 하는데, 죽음을 상기시키거나 경고하는 사물 또는 상징—마땅히 죽어야 하는 운명—을 뜻하는 '메멘토 모리'(memento mori)가 떠오른다. 하지만 멜빌은 굳이 메멘토 모리라 말하지 않고, 죽음을 나타내는 '모리'의 자리를 비워둠으로써 그 의미를 고정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그 뜻이 불분명한 만큼 이 비어있는 단어의 자리가 주는 크기와 깊이는 더해지고 더욱더 강렬한 이미지를 남긴다.

비처(Beecher)는 "거북이 영원히 사는 듯이 보이지만 결코 현명해지지는 않는다"(91)고 한다. 자신의 등에는 죽음을 상기하라는 듯 한 표식을 지녔지만, 거북은 앞에 있는 장애물을 피하려고 길을 바꾸지는 못하는 고집을 또한 지녔다. 선원들이 갓 잡아 올린 세 마리의 거북 중 한 마리는 굶은 앞돛대를 마주한 채 물러서거나 우회하지를 않는다. 오히려 거북은 자신의 이빨과 앞발의 발톱을 이용해서 돛대라는 장애물을 넘어가려고 무조건 돌진하고 분투한다(78). 이렇게 인간의 나쁜 습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멜빌이 『엔칸타다스』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인종의 문제를 상징하기도 한다. 거북의 등은 "어둡고 우울한 반면, 거북의 뱃살 또는 가슴 판은 희미하게 누런빛 내지 황금빛을 띤다"(75)고 하면서, 거북을 뒤집어놓고 밝은 색을 즐겨도 좋지만, 그 검은색을 부인하지는 말라고 충고한다(76).

거북의 검은 면을 가리고 양지에서 자란 시월의 큰 호박처럼 밝은 면을 드러내기 위해 거북의 자연스러운 자세를 뒤집을 수 없는 사람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생명체가 완전히 칠흑 같은 얼룩이라고 단언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거북은 검은 면과 함께 밝은 면도 지니고 있다.

Neither should he, who cannot turn the tortoise from its natural position so as to hide the darker and expose his livelier aspect, like a great October pumpkin in the sun, for that cause declare the creature to be one total inky blot. The tortoise is both black and bright. (76)

이런 거북이 가진 두 가지 색깔에 대한 언급은 당연히 한 가지 색만을 보려는 인간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등은 검지만 뒤집으면 밝은 색을 드러내는 거북을 뒤집어서 밝은 부분을 드러낼 수 없다고 해서 거북을 ‘얼룩’이나 ‘오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거북이 아니라 이를 뒤집어서 밝은 면을 볼 수 없는 인간이다. 특히 거북 등의 검은 색은 흑인들을 피부색 때문에 열등한 종족으로 치부하던 노예제 옹호론자들의 주장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다. 멜빌은 다양한 관점이 아니라 한 면만을 고집하는 인간의 태도가 노예제라는 인간문명의 최대의 타락을 낳은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진다.

『엔칸타다스』의 시작부분에서는 태고의 신비와 맞닿아 있던 거북은 변신을 거듭한다. 등에 죽음의 표식을 짙어지고서도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려는 거북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무모하면서도 탐욕스러운 인간에 대한 비유로서 『엔칸타다스』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이미지가 된다. 후닐라는 거북의 기름을 얻기 위해 노포크 섬으로 와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혼자 섬에서 생존하면서도 거북 기름을 놓치지 않았다. 거북 고기를 먹기도 하지만, 거북의 기름은 배의 선원들이 후닐라를 위해 팔아주고 그녀에게 돈으로 건네진다. 하지만 후닐라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인간의 욕심의 결과를 보여주는 인물이 된다. 「스케치 2」에서 선원들이 잡아온 거북을 거북 스테이크로 요리해먹고, 등껍질을 스투 쟁반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멜빌은 유머러스한 필치로 거북의 마지막을 묘사한다.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신비의 존재에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죽음의 상징하는 존재로,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거북은 계속 변모를 거듭한다. 거북은 우주의 신비를 명상하는 능력을 지닌 인간이지만, 경제적인 이윤의 추구를 위해 무모하게 위험을 무릅쓰는 타락한 인간의 상징이다. 멜빌은 그런 타락한 인간의 말로를 후닐라를 통해 보여주지만, 또 한 편으로는 후닐라의 엄청난 고통과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선원들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동정심을 잃지 않는다.

스케치의 막을 내리면서, 멜빌은 섬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우체국들과 비석들을 묘사한다. 이 길들여지고 문명화된 구조물들은, 멜빌이 첫 번째

스케치에서 소개한 괴물 같은 거북들과 현저한 대조를 불러일으킨다. 두 말 할 것 없이 우체국은 문서로 하는 의사소통—멜빌이 지금까지 표현해 온 ‘번역’의 형태—의 수단이고 “도망자, 조난자, 그리고 외톨이” 같은 비석은 마법의 섬에 멜빌이 보내는 작별의 이미지이다.

In the culminating sketch, Melville describes the post offices and gravestones that dot the island landscape. These tame and civilized structures pose a stark contrast to the monstrous tortoises that Melville introduced in the first sketch. Post offices are, of course, a means of written communication—a form of the ‘translation’ that Melville has been articulating—and the gravestones of "runaways, castaways, and solitaries" are Melville’s parting image of the Enchanted Islands. (Blumenthal 223)

결국 거북은 인간 문명의 시원에 자리 잡은 신화적 존재인 동시에, 불모의 섬 갈라파고스에서 타락해버린 인간 문명에 대한 풍자가 된다.



4. 결 론

1891년 9월 28일 멜빌이 사망했을 때, 그는 『타이피』와 『오무』의 작가로 기억될 정도로 『엔칸타다스』 같은 작품은 관심의 대상에서 멀리 있었다. 1960년대까지 멜빌의 인종적 견해에 대해 비평가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그 이후 흑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인종주의 관점에서 『엔칸타다스』가 조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모비 딕』에서 에이헵 선장의 금화(doubloon)가 선원들에게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해석만큼이나 『엔칸타다스』는 덧쓰기를 거듭한 고대 양피지(palimpsest)처럼 다양하게 해석되어왔다(Beecher 88). 1856년 『피아자 이야기』에 같이 묶여 출판이 되었을 당시 가장 호평을 받은 작품이 『엔칸타다스』였다. 갈라파고스 섬의 여행기라는 형식을 차용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해적들의 생활상이나 여러 가지 사연이 담긴 이야기 등을 담았다. 하지만 찰스 다윈의 『비글호 항해기』가 멜빌이 탐독했던 책의 하나였고, 『엔칸타다스』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엔칸타다스』의 해석은 다윈의 글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하지만 똑같은 갈라파고스를 다루면서도 멜빌과 다윈의 관심은 전혀 다르다. 다윈이 대영제국의 이익을 위해 갈라파고스의 생물을 분류하고 자신을 과학자의 반열에 올리는 것과는 달리, 멜빌은 갈라파고스를 스페인 사람들처럼 엔칸타다스로 부르면서 이 제도가 인간에게 갖는 의미를 설명하려고 한다. 논문에서는 『엔칸타다스』의 분석을 위해 우선 다윈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멜빌 역시 과학자의 태도로 엔칸타다스의 자연을 살펴해보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새로운 동물이나 지형이 아니었다. 빛과 거리에 따라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록 로돈도는 멜빌이 갖고 있던, 대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또한 록 로돈도의 새를 서식지에 따라 조망하면서 멜빌은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예제를 비롯한 차별의 양상을 비판하고, 소위 과학적 분류라는 것의

허구성과 오류를 지적한다. 다윈이 자신 있게 내세운 과학담론은 멜빌의 손에서 수정되고 조롱당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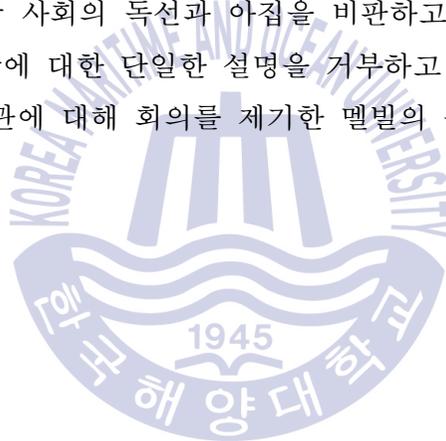
멜빌이 강조하는 다양한 관점은 갈라파고스의 자연뿐만 아니라 섬을 방문하는 인간에게도 적용되어 하나의 에피소드가 달리 해석될 여지를 주게 된다. 조류와 바람이 배를 공평하게 대하지 않아, 신비스럽게도 어떤 배는 멀리 보내고 어떤 배는 주저앉힌다는 이야기는 누가 이야기를 들려주는가에 따라 거짓말로도, 마법의 이야기로도 해석될 수 있다. 섬은 귀중한 거북 기름의 형태로 이익을 제공하지만, 인간을 때로는 고통과 절망 속에 몰아넣는다. 희생자들은 유혹당하고, 속고, 번덕스러운 자연에 놀라거나 그 손에서 고통을 겪는다. 섬을 개척하거나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던 이들은 자신이 이용했던 사람들의 손에 배신을 당한다. 결국 멜빌은 엔칸타다스의 자연이 인간의 본성을 마주보게 하는 곳이며, 그 인간의 본성이란 하나의 고정된 잣대로는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임을 말한다.

무릇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사물은 보편적으로 변함이 없다. 하지만 밀물이나 썰물처럼 해수면의 높낮이에 따라서 바위나 섬의 일부만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누구나가 자연적 이치를 들어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멜빌은 독자로 하여금 바다에 잠긴 바위나 섬이 스스로 상하 운동을 하면서 물 위로 솟아오르거나 가라앉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또 자신이 타고 있는 배는 제자리에 서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섬이 뒤로 물러갔다가 재차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생각하게도 만든다. 어느 것이 환상이고, 어느 것이 실재인지 쉽게 분간이 되지 않는다. 마치 면의 시작과 끝의 양단이 서로 붙어 있으면서, 안과 밖이 없는 것이 특징인 '피비우스의 띠'같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이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현실은 변화를 거듭하는 것에 반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환상이다.

미국 문학사에서 멜빌의 위상은 더 이상 의심할 바가 없다. 그의 다른 소설이나 시, 항해일지 등이 그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엔칸타다스』를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짧은 분량의 글임에도 불구하고, 『엔칸타다스』에는 멜빌이 관심을 갖고 천착했던 당시의 과학담론이나 노예제 등의 문제가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

은 마법의 섬을 배경으로 하여 사실과 환상을 교차시키는 멜빌의 글쓰기로 인하여 때로는 분명하게, 때로는 은유적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엔칸타다스』에서 지옥을 닮은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자연과 그 안에서 타락해가는 인간을 보는 한편, 이런 자연과 인간을 지켜보는 멜빌의 시각과, 이를 변형시켜 이야기로 구성해내는 그의 상상력을 만나게 된다. 『엔칸타다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흥미로운 여행기이지만, 알레고리와 상징이 혼합된 인간 세상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다.

『엔칸타다스』의 주요한 배경을 이루는 바다와 섬, 그리고 섬의 방문객과 거주민들에게 투사된 이미지는 대립의 관계에 놓인 모든 것들을 포용하며 어떤 형태의 차별도 계급조직도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멜빌의 염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멜빌은 다른 모든 민족과 종족 그리고 이들의 가치관을 수용하지 못하는 당시 미국 사회의 독선과 아집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그런 점에서 『엔칸타다스』는 대상에 대한 단일한 설명을 거부하고 삶과 예술에 있어서 영원불변의 절대적 가치관에 대해 회의를 제기한 멜빌의 문학적 여정의 이정표가 되었다.



Works Cited

- 노동욱. 「이스마엘의 진리탐색: *Moby-Dick*의 고래학장들을 중심으로」. 『영어권문화연구』 5.2 (2012): 85-111.
- 두산동아백과사전연구소 편. 『두산세계대백과』. 서울: (주)두산동아, 1996.
- 멜빌, 허먼. 『모비딕』. 김석희 역. 파주: 작가정신, 2014.
- 스펜서, 에드먼드. 『선녀여왕』. 임성균 역. 파주: 나남, 2007.
- Albrecht, Robert C. "The Thematic Unity of Melville's *The Encantadas*." *Texas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14.3 (Fall 1972): 463-77.
- Beecher, Jonathan. "Variations on a Dystopian Theme: Melville's *Encantadas*." *Utopian Studies* 11.2(2000): 88-95.
- Blumenthal, Rachel. "Melville's *The Encantadas*." *The Explicator* 64.4 (2006): 222-23.
- Coxe, Louis. "Melville's *The Encantadas*." *The New Republic Reconsideration* May 12, 1973, 32-35.
- Darwin, Charles. *Journal of Researches into the Natural History and Geology of the Countries Visited during the Voyage of H. M. S. Beagle round the World, under the Command of Capt. Fitz, R. A.* 1839.
<<http://pinkmonkey.com/dl/library1/book0631.pdf>>
- _____. *Geological Observations on the Volcanic Islands, Visited During the Voyage of H.M.S. Beagle, together with Some Brief Notice on the Geology of Australia and the Cape of Good Hope.* 1844.
<<http://pinkmonkey.com/dl/library1/book0631.pdf>>
- _____. *Journal of Researches into the Natural History and Geology of the Countries Visited During The Voyage of H. M. S Beagle Round the World under The Command of Capt. Fitz Roy, R. A.* New Edition.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871.

<http://www.gasl.org/refbib/Darwin_Beagle.pdf>

Hillway, Tyrus. "Melville's Education in Science." *Texas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16.3 (Fall 1974): 411-25.

Howarth, William. "Earth Islands: Darwin and Melville in the Galapagos." *The Iowa Review* 30.3 (2000/2001): 95-113.

Howington, Don S. "Melville's 'The Encantadas': Imagery and Meaning." *Studies in Literary Imagination* 2.1 (April 1969): 69-75.

Jackson, Arlene M. "Technique and Discovery in Melville's *Encantadas*." *Studies in American Fiction* 1.2 (Autumn 1973): 133-40.

Melville, Herman. *Moby-Dick*. London: Penguin, 2012.

_____. *The Encantadas or Enchanted Isles. Billy Budd and Other Stories*. New York: Penguin, 1986. 67-137.

Moses, Carol. "Hunilla and Oberlus: Ambiguous Companions." *Studies in Short Fiction* 22 (1985): 339-42.

Newbery, I. "'The Encantadas': Melville's Inferno." *American Literature* 38.1 (1966): 49-68.

Spenser, Edmund. *The Faerie Queene*. ed. Thomas P. Roche, Jr. London: Penguin, 1987.

Tanyol, Denise. "The Alternative Taxonomies of Melville's 'The Encantadas.'" *The New England Quarterly* 80.2 (2007): 242-79.

Worden, Joel Daniel. "The Galapagos in American Consciousness: American Fiction Writers' Responses to Darwinism." Diss. Delaware U, 2005.